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구원의 축복으로 임하였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이 귀한 절기를 다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올해 연말에도 온 세상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따뜻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정치적으로 양분된 사회, 복음으로 하나 되게

TGC, 정치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교회공동체에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방안 권면

최근에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다는 교인의 통보를 들은 어느 목사의 하소연을 들었다. 또 문화적인 문제를 놓고 분열된 당회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나아가서 교회 내 정치적 분열이 너무 극심하여 결국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목사의 이야기도 알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다. 지난 육 년에 걸쳐서, 정치라는 전염병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교회를 강타했다. 최

근 라이프웨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중 무려 63퍼센트가 잦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요인 중 하나가 다른 아니라 정치적 분열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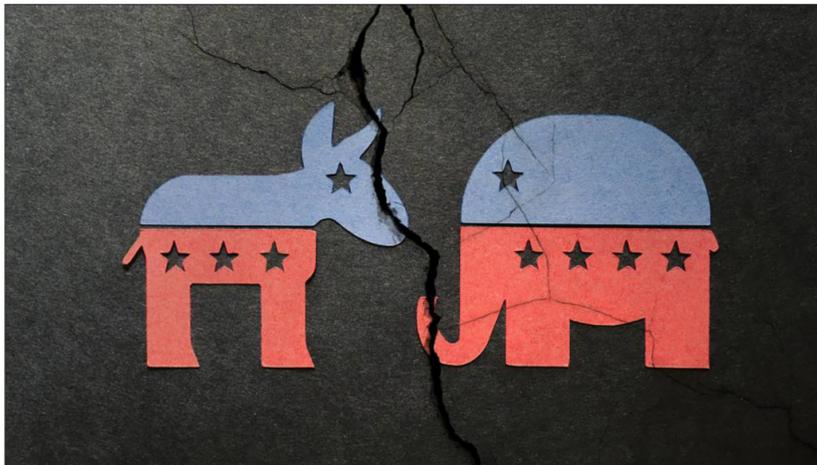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신약학 교수 패트릭 슈라이너는 네 가지 방안을 권면해준다(What Can Pastors Do About Political Division?)

1. 가장 먼저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되새겨 주어야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인이 충성을 바쳐야 할 첫 번째 대상이 예수님과 교회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그 핵심에서 정치적이란 사실을 교인들이 알게 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세속적인 의미에서 사적이거나 당파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지를 들고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 시대이다. 보통 이런 식이다. "이스라엘은 전사로서의 왕이 백마를 타고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은 단지 당신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실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이 받은 맞지만, 받은 틀리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선언을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막 1:15; 15:2, 26).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에게 충성을 바쳐야 할 오로지 한 명의 통치자가 있을



뿐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분은 내 삶의 주님이시다"라는 정도의 의미로만 축소해서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이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 분열을 뛰어넘어 그 위에서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충성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이 전 세계에 걸쳐서 만든 왕국이자 도시에서 왕되신 주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하는 가장 정치적이고 또 실행해야 할 사명은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할 왕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교

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2. 정치적인 영역에서 교인을 제자로 만들라

정치와 관련하여 교인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교회에서는 최대한 정치에 관해서 자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따라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더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로 인해 교회가

분열된 게, 행여나 우리가 정치에 관해서 어떻게 토론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아닐까? 현재 정치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몇몇 목사에게 물었다. "뭘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뭘 바꾸고 싶나요?" 그중 몇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개인 간 대화라는 측면에서 왜 그들을 좀 더 빨리 제자로 만들지 않았는지를 후회한다는 것이었다. 교회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그냥 두고 보자는 안 되는 대화나 말이 그냥 퍼지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알고리즘 시대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기!

TGC, 스티브 베이트먼 목사가 전해주는 알고리즘 시대에 승리하는 노하우 소개

우리는 알고리즘이 아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 알고리즘은 내가 듣고 싶은 유쾌한 거짓말을 한다. 왜 그럴까? 알고리즘을 만드는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의 돈, 관심, 투표를 원한다. 이익을 위해서든, 칭찬 또는 권력을 위해서든,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첨하는 이 일에 투입된다.

알고리즘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알고리즘이 관심을 기울이는 건 오로지 하나, 우리 결정에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시간 동안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심지어 가장 확실하게 나의 관심을 끄는 주제를 화면에 띄운다. 나를 화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흥분시키거나, 또는 존경심을 우러나게 하는 것들 말이다. 알고리즘의 아첨은 긍정적인 확인을 부드러운 방식으로 또는 내가 항상 의심했던 것이 맞았다며 나를 안심시키며 확인시킨다.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알고리즘은 속삭인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다시 현실로 인도한다. 알고리즘이 거짓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을 말하고 우리를 올바르게 지속적인 성취의 길로 안내한다.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우상숭배와 죄의 현실에 직면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발가벗겨졌지만, 동시에 값없이 사랑받는다는 복음 안에서 기뻐한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고 영원히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온전히 용서받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힘든 성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 아첨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내 삶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을까? 스티브 베이트먼(Steve Bateman, 알라바마 주 제일성경교회 담임)목사는 일곱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Seek Wisdom in the Age of Algorithms).

1. 지혜롭겠다고 결심하라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 가족에게 지혜의 실제적인 정의를 제시했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능숙하게 분별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분별은 개발해야 할 기술이다. "인간의 간교함과 속이는 간계"에 속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지적으로 성장해야 한다(엨 4:14-15). 예수님을 더 오래 따를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근 목사 3면



푸른초장 이남수 목사 4면



평신도를 위한 조직문화 이길호 목사 7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서, 크리스탈장대상, 성가대·목사가운
(323) 737-7699
인터넷 소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지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미백(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료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2023년 봄학기 개강 (2월 6일)

학위과정	교육학 철학박사(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과 e-Library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 강의실 한국어, 영어로 수강 가능 스페인어, 중국어, 인니어 동시통역 수강가능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실시간 Hybrid 강의 (대면미팅 및 Zoom, Distance)

ats ATS 정회원 **ABHE** 정회원 **tracs** TRACS 정회원 **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IQG

이벤트1. Early Bird 장학금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절차를 12월 31일 전에 완료하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이벤트2. 학교 소개 설명회
(1차)12월 15일 목 오후 4시 (2차)1월 17일 화 오후 4시
*장소: MC 310 강의실
*참석하시는 모든 분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드림

이벤트3. 겨울 릴리 공개 특강
1월 9-31일(월,화, 4주 5:00-9:30 pm)
선교와 목회를 위한 웹사이트 제작
1월 7일-2월 4일(매주 토요일 9:00am-6:00 pm)
디지털 목회를 위한 온라인 예배 실습

2023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Ext 101
입학 문의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발행인 칼럼

PASS (패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축구만큼 전(全) 세계인의 눈길을 끌고 마음을 흔드는 스포츠는 없다. 그리고 축구만큼 공평하고 저렴한 운동 경기는 없다. 다른 스포츠는 값비싼 장비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축구는 그리 비싸지 않은 공 하나만 있으면 된다. 색상만 다르지 유니폼도 비슷한 가격이다. 이런 저렴한 장비의 축구가 그 갈망만큼은 고결하다. 그런 갈망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2002년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의 입에서 나왔다. '하지만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But, I'm still hungry).'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16강전에서는 패했지만 모든 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장면을 만들었으니 예선 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포르투갈과의 경기였다. 지거나 비기면 완전 탈락이요 이겨도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행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었는데 패색에 질어지던 때에 동점 골과 역전 골이 터진 것이다.

모든 팀 경기가 그렇지만 축구를 잘하는 팀은 개인기도 좋아야 하고 전술도 탁월해야 하지만 패스가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개인기가 좋아도 패스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과는 '꽁!'이다. 그날도 그랬다. 후반전 추가 시간 때에 손흥민 선수가 흘러나온 볼을 가지고 적진 깊숙이 단독으로 침투하였다. 수비수들이 그를 겹겹이 에워쌌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는 않는 그때 번쩍이는 일이 벌어졌으니 다름 아닌 답대한 패스가 달려오던 황희찬 선수에게 정확히 연결된 것이다. 그 패스는 골로 이어졌고 우리나라는 16강에 오를 수 있었다. 선배가 후배에게 흔쾌히 양보한 패스는 16강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온 세계에 각인시켰다. 축구만이 아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패스는 중요한 도구이다. 어떤 영역이든 적절한 시간과 공간에 주어진 패스는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기적을 창출하기도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 윈스턴 처칠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말했다. 알 듯하면서도 동의할 수 없는 정의(定義)이다. 역사는 기록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현재가 과거와 미래와 함께 춤추는 유기체(有機體)이다. 역사는 살아 숨 쉬고 움직이는 패스이다. 과거가 현재로 패스한 것을 현재가 미래로 패스하는 것이다. 패스 없이 역사는 형성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 멋진 패스는 멋진 역사를 바꾼 패스는 나쁜 역사를 만든다. 대한민국의 아픔은 패스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려는 선진(先進) 들을 찾지 못했다. 후진(後進)들도 앞선 것을 배우기보다 청산하고 부인하려는 데 급급하다. 그래서 받은 유산(遺産)을 성실히 계승하여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가려는 역사적 인물을 찾기 힘들다.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얼굴 부상만 가지고 뛰었던 것이 아니라 선수 생명을 걸고 뛰면서 공을 후배들에게 패스해 주었다. 그 진정성이 여러 곳에서 보였다. 우리의 선진들이 부상은 물론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패스해 준 것이 있다. 무엇인가. 복음이다. 2000년 동안 잘 이어져 왔다.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패스해 준 복음을 어리바리 하다가는 빼앗긴다. 그 결과로 암울한 선교역사를 만들 것이다. 그럴 수 없다. 복음을 다음 세대에 잘 패스해야 한다. 답대하게! 정확하게!

소그룹 안에서 민낯 드러내며 서로 함께 나아간다!

스몰그룹.컴,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노하우 제안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죄악들과 싸우고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의문과 의심으로 인해 괴로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쉽게 꺼내지 못한다. 왜 그럴까? 다른 이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거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을 어려워하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다른 이들이 자신이 완벽한 존재라고 믿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쓴다. 소그룹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소그룹의 구성원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다면 이런 소그룹이 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다음은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이다(Permission to Be Real).

1. 본이 되어준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룹이 서로 투명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길을 닦아야 한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하루를 보내든, 그것이 좋은 나쁜든, 구성원들에게 당신의 하루를 솔직히 오픈한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어두운 면을 덮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이를 통해 다른 이들도 자신을 오픈할 수 있다.

2. 당신의 약점을 보게 한다

구성원이 당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3. 소그룹이 기도를 통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위해서는 시편을 읽어본다.

4. 구성원이 소그룹에서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때, 감사를 표현한다

진짜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는 엄청난 용기를 낸 것이다.

5. 좋은 질문(follow-up question)을 해준다

만약 누군가가 기도를 요청한다면, 그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라. 만약 누군가가 질문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진술한다면, 그에 대해 더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라.

질문하기(follow-up question)

마지막 요점인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자. 이것은 구성원이 소그룹을 통해 배운 내용을 열고 적용하도록 돕는 좋은 방법이다. 소그룹에서는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질문은 대화를 자극하도록 고안되었다. 좋은 질문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현재 삶의

YOU HAVE Permission to SCREW UP NOT HAVE IT SORTED NOT KNOW YOUR 'TRUE' PURPOSE FEEL LOST, TIRED, SCARED BE OVERWHELMED BE UNBALANCED FEEL MISUNDERSTOOD HAVE GRIEF, ANGER & ECSTATIC JOY EXPRESS YOURSELF (EVEN IF IT MAKES OTHERS UNCOMFORTABLE) BE COURAGEOUSLY REAL (OR NOT) ...TO BE EPICALLY HUMBLY HUMAN...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다음은 좋은 질문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이다.

1. 답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주어진 답변을 통해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2. 열린 질문을 하고 닫힌 질문을 피하라

열린 질문에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반면 닫힌 질문에는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 대답이 필요하다.

- a) 열린 질문: 출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b) 닫힌 질문: 직장까지 운전하십니까?

3.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라. 거기에서 출발하기만 하면 된다. 좋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4. 소그룹 토론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라

소그룹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하고 토론을 시작하면, 구성원들은 그 맛을 느끼게 되고, 머지않아 그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단순히 '기도 부탁드립니다'가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결국 소그룹의 구성원이 자신이 먼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가게 될 것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986-4400 (대표) E-mail: ny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3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논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이사야 52:13 - 53:12
2. 신약주해: 히브리서 10:19 - 25
3. 논문제목: 포스트 현대의 개혁주의 교회론을 논하라 - 메타버스와 성찬
4. 설교본문: 구약 - 야모스 8:11 - 14, 신약 - 딤후 4: 1 - 5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3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7회 총회기간(5월23일 - 26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3년 5월 22일(월) - 23일(화)
장소: 퀸즈장로교회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 시무)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3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박희근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2,23일) 사용할 속도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주소 :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전화 : 917-254-0887 / 이메일 heepark91@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고시부 서기 :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홍기표 목사
서 기 : 안병권 목사
고시부부장 : 손기성 목사
고시부서기 : 박희근 목사

정치적으로 양분된 사회..

(1면에서 계속)

한마디로 그들은 어려운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쳐서 해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좋은 교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제자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는 경향이 있다. 정치를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케이블 뉴스와 세속 문화는 지금도 교인들에게 분노의 정치를 훈련시키고 있다. 목회자는 부정적인 대화와 질문의 근원을 방향에서부터 바꿔야 한다. 나아가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해에 도전할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목회자는 합당함과 근신함과 바른말로 자기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친다(빌 4:5, 딤후 2:2, 8). 이 교훈을 우리는 다른 모든 영역과 더불어서 정치적 삶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기억하자. 지금 당장 정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정치가 나중에 훨씬 더 분열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3. 불안해하지 않는 존재가 되라

격동하는 분노의 바다에서 교인들이 불안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교회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근심하지 않는, 평화로우면서도 고요하고 또 한결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어둡고 위험한 세상에서도 밝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신중하게 말하고, 행여 실수했다면 사과하는 데에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린 상태에서 우리 시대 당면한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는 모범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교인 각자가 공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우리는 강단에서 그 문제를 다룸으로써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신 것도 아니었다. 헤롯당이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지도 않으셨다. 예수님은 단지 질문에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가이사의 주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정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셨다(마 22:15-22).

4.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분야에서만 똑같이 분명하라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는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는 곳에서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침묵해야 한다. 말씀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마치 성경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기에, 정치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이 의견의 일치를 보는 건 어렵다.

성경은 정치와 정책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이다. 많은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은 없다. 그리스도인은 정부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부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성경 속 어떤 이야기는 대답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어떤 명령은 전혀 다른 대답을 주는

것 같기도 하다.

해석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함정을 만나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편견을 텍스트 속에 이입해서 읽기도 한다. 또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에서 고대 정치 시스템에서나 통하는 이야기를 현대 정치 시스템에 적용해서 이해하려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구약의 정치 상황과 신약의 정치 상황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내 취향에 맞는 성경 속 정치 성향 중 하나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다른 것을 향해서 그냥 눈을 감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한 하원 의원이 워싱턴 DC에서 목회하는 마크 데버(Mark Dever) 목사에게 국가 예산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가 내게 들려주었다. 데버 목사는 그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나는 나름 확고한 생각이 있었지만, 문제는 성경이 확실하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원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데버 목사는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문제에 관해서만은 묵회적 권위를 양보하지 않았다.

정치적 제자도와 관련하여 교회 지도자는 첫 번째 방어선이다. 세상 문화는 쉬지 않고 교인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렇기에 교회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대안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산다면, 그것부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이렇게 감탄하지 않을까? "와, 저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것 좀 보세요!"(요 13:35).



시론

선한 영향력



은희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볼 수 있는 '고마리'라는 작은 식물이 있습니다. 고마리는 여름이 끝나갈 무렵 8월 말에서 9월 중순에 흰색과 분홍색의 예쁘고 작은 꽃이 피어납니다. 이 꽃은 손톱보다도 작고 물기가 서어 가지밖에 안 되지만 밀에 뿌리는 자기 몸집의 서너 배는 족히 됩니다. 이렇게 잘 발달된 뿌리로 더러운 것들을 정화하는데 오염물질인 질소와 인을 영양물로 흡수하기 때문에 고마리 군락이 있는 곳은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차츰 맑은 물로 바뀝니다. 고마리의 뛰어난 정화 능력은 축산 폐수도 깨끗한 물로 정화할 정도라서 때로는 고마리 군락으로 인해 잎물보다 아랫물이 더 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리는 주로 논둑이나 개울가 습지, 시커먼 도랑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보통 도시에서는 하수구 시공장 같은 지지불한 곳에서 자랍니다. 놀라운 정화 능력을 가진 고마운 식물 고마리를, 이 이름에도 걸맞게 '고마운 고마리'라고 부릅니다. 작은 식물이라도 환경을 정화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기도 합니다.」(인터넷 퍼온 글) 참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것들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고마운 고마리'도 그 중 하나입니다. 더러운 곳이나 습지에 살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동시에 많은 동식물들과 조류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 매몰되어 도덕적 인간이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계를 토로하며 스스로를 안위하거나 교회 안의 신자로만 위안 삼은 채 굳어버리지 말고, 삶의 현장이 어디든 '고마운 고마리'처럼 현장을 정화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 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운문화재단(코오롱그룹) 우정 선행상 심사위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사회적 약자들을 섬긴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대략 1년에 300여건의 사례들이 자천타천으로 신청되고 그 가운데서 대상 1명, 본상 3명, 격려상 등등을 선정하여 꽤나 큰 시상을 합니다. 매해마다 300여건 모두다 깊은 감동을 줍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공의로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나 많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외로움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서로 의지하며 응원하며 새 힘을 줍니다. 올해 한분을 소개합니다. 최경수 미러여섯의원 원장(산부인과 의사, 권사). 영등포 쪽방촌과 노숙자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 그들의 건강을 무료진료하고 약을 제공합니다.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등 각 진료과목의 의사들과 이들을 돕는 간호사들과 약사들 그리고 진료 장비들을 갖춘 '움직이는 병원'입니다. 남편(소아과 의사, 장로)도, 딸(안과의사, 집사)도 다함께 합니다. 본인도 2차레나 암에 걸려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한결같이 섬겼습니다. 놀랍게도 40년 동안, 이분이 올해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빛고 생각해 봅니다. 40년이라... 움직이는 병원을 40년이라... 결코 짧지않은 시간입니다. 그 40년 동안 쉬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테지만 그러나 모든 역경을 이겨낸 40년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또 중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장애인들과 이주민들의 건강도 정기적으로 섬겼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백마디 천마디 보다 '이분의 삶' 그 자체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변화가 무엇인지,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그냥 전해줍니다. '예수쟁이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도시(마을)의 치유와 회복과 재생'이 이런 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하셨지 '교회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의 빛'이 되려고만 노력하지 '세상의 빛'이 되려는 데는 인색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은 걸어 다니는 교회(Walking Church)인 이들 '작은 예수'(Small Christ)들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올 연말에 각 교회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돌보고 이들에게 '너는 결코 혼자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어. 함께 기도해. 힘내라'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한에서 성탄의 격려로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고마운 고마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 나눔'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각처에서 세워집니다. 아기 예수가 임하시는 곳입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모든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pastor.eu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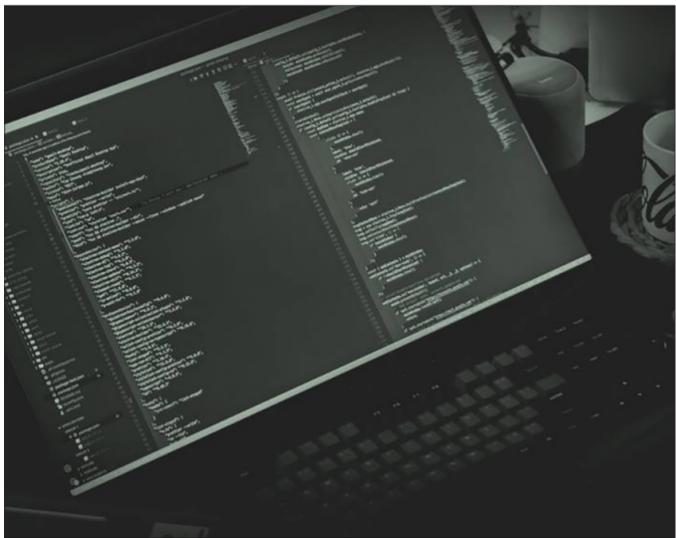
알고리즘 시대에서 크리스천답게...

(1면에서 계속)

2. 진리의 중재자로 말씀을 의지하라

우리 복음주의자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고백한다. 성경만이 최종 권위이자 진리의 표준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조차 악명 높은 성경 문맹(biblical illiteracy)은 우리를 "엔터티 정보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든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보내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을 비교할 때, 우리가 진짜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걸까? 패트릭 밀러(Patrick Miller)가 지적했듯이 오늘 날 많은 교인의 "진정한 멘토는 알고리즘"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말씀하시는가?"라는 질문 형식으로 포장된, 기만적이고 아첨하는 메시지의 공격을 받고 있다(창 3:1). 알고리즘이 주는 아침의 매력에 저항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이 실제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똑바로 아는 것이다.

3. 인터넷 탐색 기술을 연마하라

"속지 말라"는 권고나 아니라 명령이다(고전 6:9, 15:33, 갈 6:7, 약

1:16). 잘 속는 건 경건한 게 아니며, 순진한 건 고귀한 게 아니다. 사실 속는 것은 죄가 될 수도 있다. 신자라면 내부에 거짓말 탐지기를 장착하고 수시로 작동시킬 의무가 있다.

(16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 California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세계선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가족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히비스마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and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성탄의 계절에

12월에는 성탄을 기념하는 조형물들이 상가들이 밀집된 로마에 어김없이 내걸린다. 특히 장사하는 분들은 이런 계절에 대목을 보려고 바쁘게 움직인다. 길가마다 네온사인 이 빛나고 상점마다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이런 움직임에 공연스레 마음이 들뜨게 된다.

쇼핑센터에는 선물 보따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의 계절은 이런 현상과는 달라야 한다. 성탄절은 성자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으로 오신 날이다.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오셔서 비천하고 연

약한 육신을 입으셨다. 찬란한 빛에 거하시던 분이었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모습을 입으셨고,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셨다. 그리고는 온갖 수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모든 인생들은 높은 곳을 목 말라하면서 오르고 또 오르려고 발버둥 치는데 말이다. 높은 곳에 올라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찬란한 세상을 보여주고는 내게 잘하라, 그리하면 저 세상을 내게 주겠다고 했다. 찬란한 곳에 빛으로 거하시던 예수님께, 그것도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내게 잘하기만 하면 내게 주겠다고 유혹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코미디 같은 일인가!

그런데도 이 땅의 수많은 인생은 사탄의 제의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요구

해도 하겠으니 제발 세상을 내게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성탄절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다. 몇 주 전, 친분이 있는 분과 성 프랜시스 사역지 아시시를 방문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는 성 프랜시스 사가 태어났고 사역했고 세상을 떠난 현장이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성 프랜시스 사 제자들을 결성했던 포르치옹골라 교회당과 그리고 아시시 시내에 있는 대성당을 구경하는 것으로 끝낸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곳은 수바시오 산 800고지에 자리 잡은 Eremo delle Carceri 기도처다.

우리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기도를 실행하는 일은 어렵다. 그런데 성프랜시스는 수시로 이곳까지 올라와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지금은 소

박하게 건축되었지만 그 옛날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자연스러운 기도처였다. 바위를 깎아 만든 지하로 내려가는 문은 낮고 좁아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 또한 낮고 좁아서 비대한 사람은 통과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굴 한편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우묵한 곳이 있다. 이 자리에서 성 프랜시스는 잠을 잤다고 한다. 바위를 침대 삼아서...

그리고 이곳을 나오면 오래된 상수리나무가 있는데 찢어진 줄기를 철사로 동이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웠는데 이 나무에 깃들인 새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길을 따라 조금 더 진행하면 제자들을 둘러앉히고 강론하던 돌로 된 단이 있다. 이곳에서 수시로 제자들과 담론을 나누던 자리였을 것이다. 또한 주변에 제자들이 기도했

다고 전해지는 굴들이 여러 곳 존재한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정숙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어쩌면 이곳은 성 프랜시스나 제자들이 더 낮은 자들이 되기 위해, 기도나 수행으로 힘쓰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싶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 높은 곳까지 저 아래 아시시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 올라오기도 한다. 아마도 몇 시간 동안 걸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평생을 걸어왔던 성 프랜시스를 닮아보려는 행동이 아닐까 싶다.

성탄의 계절이야말로 떠들썩하게 즐기는 계절이 아니라, 죄인으로 소망 없이 살고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본받기 위해 힘쓰는 계절이 되어야지 싶다.

매리크리스마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이남수 목사
(하와이행복교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좋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뉘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할 일이 뭘까?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와주자"...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당

수고해준 사람을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빌레몬서 1:24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골로새서 4:10절에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우상 장사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바울은 몰러가라고 데모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울을 도망가게 하고 대신 잡힌 사람

을 아무생각 없이 읽으시면 아무 감동 없습니다. 그냥 배타고 같이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보니까 아리스다고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 바울과 누가가 기뻐하고 있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 로마로 가는 배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저는 그 마음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리스다고가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여러분은 어

가뭇이 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아시아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함이요. 당시에는 강도가 많은 시절입니다.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 혼자 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한 교회 재정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갔습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리스다고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도 다닐 때에도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평생 예수 복음 전도하면서 목회만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돈이 필요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집 나가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보통 한 달에 천불 쓰는 사람도 집 나가 여행하고 돌아오면 2천 불을 쓰고 옵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 다니면서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늘 바울과 함께 했던 아리스다고가 이런 일을 맡아 했다고 봅니다. 아리스다고는 늘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필요한 경비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바울이 먹을 것도 사고 사람을 만나고 돈이 필요할 때 항상 옆에서 말없이 물질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에게 늘 돕는 손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리스다고, 그는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갈 때 그 자리에도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는 그 자리에도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감옥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좋은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함께 하는 아리스다고!

말없이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회자나 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아리스다고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옆에서 말없이 도와주시는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좋은 크리스천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hichristian9@gmail.com

참 좋은 사람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27:2



시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울 옆에서 이렇게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평생 전도하며 목회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고 서로 도울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고 함께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29절에 보면

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나옵니다. 항상 바울과 같이 다니다가 바울이 위험할 때 바울을 피신시키고 자신했던 대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도 제가 위험할 때 저 대신 잡혀가는 아리스다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항상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데 아리스다고도 함께 갔다고 나옵니다. 이 말

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 얘기하면 되냐? 교인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가 배를 타고 함께 가는 것을 누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더 묵상해 봤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사도행전 20:4절에 보시면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가는 여러 사람 중에 아리스다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바울과 함께 가느냐? 당시 바울이 3차전도 여행을 다닐 때 예루살렘 지역에 큰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다. 교회의 개혁은 아프고 병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에 대한 단순한 믿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해져 버렸고, 복잡해진 만큼 산을 옮길만한 단순한 믿음의 능력들을 상실해 버렸다. 이를 회복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회복과 축복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며, 교회를 어머니의 품과 같이 기쁘게 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이다. 오늘날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징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 자신에게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교회 밖에서 동냥(?)을 찾지만, 헌신해야 될 한 교회가 분명하

목회자와 성도의 구별 또한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리며, 예배생활에 강조되어야 마땅할 형식들을 파괴시킨다. 후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대상으로서 목회자의 권위도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이라 짓밟아버리는 것을 본다. 영적아버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에 대해 무지와 무례함을 드러낸다. 설교는 하나의 목회자의 의견(Just his opinion)처럼 여겨지고 자신의 삶을 담아내는 헌신과 순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은혜 지상주의에 빠져서, 여기서도 은혜, 저기서도 은혜, 은혜라고 느껴지는 자기 감동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를 찾아볼 때, 경건주의가 왕성한 시기에 가장 성령의 은혜도 충만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잃어버린 채, 은혜의 풍성함과 부흥만을 말한다던 교회는 싸구려 복음 장사꾼의 소굴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썩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은혜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다. 첫 담임 목회지에서 자신의 목회를 '돌짜발 목회'라는 말로 정의했다. 교회가 가진 긴 역사만큼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옥도 발 같고 고운 가루 같기를 소망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긴 역사의 큰 매듭 매듭마다, 대부분의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같음과 분열의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목회의 매일 매 순간들을, 마치 돌짜발에서 일일이 돌을 깨어 옥도로 갈아엎어야 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는 마른 뼈와 같은 교회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오랜 전통이 녹아있는 교회에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이를 위해 엄청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 그의 노력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성도들에게 목회적 모멘텀을 주기 위해 간절히 권면하는 모습이 수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교회 같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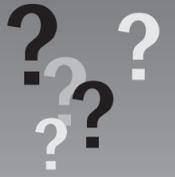
급 받는 고용인에 불과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언제라도 청빙 광고가 나가게 되면,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벌떼처럼 지원해 올 것이고, 언제라도 다시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목회자를 고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교회다운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프도록 상처 난 교회의 모습, 영적 실패의 현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럴 때에 목회자는 결단을 하게 된다. 순교의 각오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날 것인가? 어느 쪽도 쉽지는 않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과 싸울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길 같은 개척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민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렇게 놀랍지 않은 현실의 한 부분이다.

교회가 상처 나고, 성도들이 영적 실패의 현장을 걸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위기는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진 환경에서 나타난 위기는 하나님의 징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c0316@gmail.com

Q: 저는 요즘 요한 계시록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4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백마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로미타의 Kwon 권사

A: 요한 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 합니다. 묵시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로 마치 동상 제막식 때 천으로 감추어 놓은 것을 오픈해 실체를 보여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감추인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 비밀을 숨겨 놓았는데 계시록을 통해 이 땅에 펼쳐 보여주는 것을 "Revelation, 계시"라 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입니다.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책이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은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한 예로 다니엘서 7장에서는 4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곰, 표범과 괴상한 괴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오늘 계 6장에도 4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미래에 전개될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 6장의 사건들은 한마디로 무엇이나? 여러 학자들의 설이 있지만 계 6장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중요 사건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상징하는 종말론적인 사건들 백마, "교회의 복음 증거 운동"을 상징

첫째 인을 뿜 때에 "흰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상세히 설명하겠고 흰말 시대가 지나가면 두 번째 인을 뿜 때는 "붉은말"이 나옵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상징합니다. 전쟁도 보통 전쟁이 아니라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졌는데 이것은 가공할만한 큰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은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먹지 못하면 사람의 얼굴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처럼 숯처럼 변하는데 이것은 기근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은 전통적으로 공포의 색, 죽음의 색을 말합니다.

첫째 인을 뿜 때에 흰 말이 나타납니다.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마를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활은 칼과 마찬가지로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결론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이것의 성경적인 해석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의 복음 증거 운동입니다. 즉 교회의 선교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1세기부터 오늘날인 21세기까지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등장하는 흰 말 즉 백마의 모습입니다. 복음 전파의 흰말이 로마제국도 정복하여 적 기독교였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은 유럽과 영국을 거쳐 서진하여 청교도를 통해 미국에 왔고 복음의 흰 말이 서진하여 아시아인 한국, 중국, 일본까지 들어오게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미리 예언하여 롬10:18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복음으로 인치는 백마 시대입니다

기 교회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 전체에서 보이는 게 아니었던가? 주님이 주신 되시니 주님의 손에 맡기므로, 마음에 모든 두려움들을 먼저 몰아 내기를 소망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할 일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교회의 교회됨이 가장 중요한 것, 세상과의 구별된 거룩성을 사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와 본질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적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종교개혁, 교회사랑, 교회개혁 3

지 않음으로 영적인 뜨내기 인생이 되고 만다. 교회를 복되게 세우는 개혁을 위해,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해 성경 자체가 자증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한 사랑의 복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구별됨을 통한 거룩

교회다움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다. 그런데 작금의 종말 시대 사상은 교회와 세상의 구별을 없게 만든다. 신자와 세상 사람 사이의 간격을 없애 버리면서 교회를 세상의 것으로 오염시켜가는 것이다. 표시 나지 않게 조금씩 거룩함의 구별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작은 예를 들어본다면, 옛날 복음성이 표지를 보면 사람의 얼굴이나 어떤 자기 선정용으로 제작된 경우를 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요즘은 겉모양만 보아서는 예수 믿는 찬양곡인지 세상 유행가 음반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오죽하면 안수받은 목사가 트로트 개사곡으로 찬양을 만들어 세상 옷을 입고, 그 춤을 흉내 내기까지 하지 않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면 그 내면의 신앙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말하는 것이나 옷매무새 까지도 달라져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전혀 겉으로 그 구별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교회 중직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술병이 없힌 잔치상을 소개하는 데 별로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인 은혜와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속성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거룩의 본질을 회복

오래 걸려도 하나씩 돌씩 본질을 회복시켜야 한다. 세상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에서부터 세상에서 부름 받아 거둔 존재이기에, 결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으며, 흉내를 낼 필요도 없다. 신앙생활을 연기로 하느냐? 진짜로 하느냐? 고민해야 한다. 연기로 하는 경우 그에게 남는 것이 없다.

신앙은 배우고 익히며 쌓여지고 쌓여서 빛나고 영광스러워져야 하고 향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척'하는 신앙생활은 연기하듯이 그의 영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따름이다. 어떤 복음성이 가수는 돈을 받고 대형교회에서 솔리스트로 찬양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었을 뿐, 자신의 참된 예배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는 더욱 공허하여, 마치면 교회에서 받은 그 사례를 목마른 영혼의 갈증 해소소 위해 술을 사 마셨다고 한다. 예배를 연기하고 쇼 하듯 하게 될 때, 인간은 더 악하게 타락하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다.

돌짜발 같은 교회

오랜 시간 유수한 교회에서 부목사 과정을 거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부임해 간

해서, 계속 성도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교회를 사임하고서 개척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친구 목사가 반복해서 나에게 한 말은 한 가지였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시스템, 목회 기술, 행사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기초와 본질의 문제라는 것이다. 평화로운 때 전쟁을 연습하라는 말처럼, 교회가 참 좋을 때에도 꾸준히 기초와 본질의 문제를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 더 나아가 부흥의 일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기초와 본질의 문제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목회의 기초와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한 거룩의 회복이며, 이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교회 직분 세우기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모든 목회적 사역들이 상상누각처럼 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예배가 경시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예배가 소홀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자기 소견을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쉽게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므로, 스스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의 구별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 목회자를 소비자를 만족케 하는 기업의 판매사원처럼 생각한다. 마치 율

계와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영적인 실패는 교회와 성도 개인의 삶에 피폐함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한다. 과거에도 그랬다.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는 복이 없었다. 구약시대, 영적으로 거룩함의 기초를 상실한 이스라엘에 비를 주시지 않았다. 결국 가뭄이 찾아왔다. 가뭄 끝에는 흉년이 필연적이었다. 흉년이 찾아들면, 백성들은 서로 간에 강박해지고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 이웃나라의 종이 되어 버렸다.

영적회복, 세상회복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무너진 곳에 삶의 피폐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 교회와 예배가 그 본질과 기초를 회복해야 한다. 아주 쉽지가 않다.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 길, 교회를 회복하는 길, 목회를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 오늘날처럼 복잡한 예가 없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백 명의 성도를 목회하면 각자의 취향에 맞는 백 개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감절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겸손하는 지역 교회와 사이버상에서 말씀을 듣는 교회까지 포함하면 이루어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고 듣게 된다.

이러한 때에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건강한 목회를 이루어 가는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개혁된 교회를 계속해서 개혁할 수 있을까? 먼저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한다. 지상교회의 연약함 들은 초

davidnjon@yahoo.com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더 큰 것을 경험하라

지난주부터 세계는 월드컵 카타르에서 여름이 아닌 겨울 축구 열기가 한창입니다. 중동에 진행되는 월드컵이 여전히

많은 세계인들에게 환희와 기쁨을 가져다주고 또 다른 국민들에게는 아쉬움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특별한 결과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보통 축구하면 유럽과 남미가 전통적인 강호로 여겨지고 아시아는 축구의 변방 국가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스포츠의 묘미는 한 수 아래로 취급되던 팀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승부를 뒤집고 이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보면서 세계인들은 열광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길 것 같았던 국가가 졸전을 펼치거나 실수를 연발하고 패배를 예상했던 팀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 다 그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 강호였던 아르헨티나의 역전패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이변이고 월드컵 역사에 남을만한 기적같은 결과입니다.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를 보유한 아르헨티나는 우승 후보로까지 기대되었던 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오랜 기간 한 팀으로 준비했고 특히 일자 수비라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왔던 결과를 강팀 상대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일본이 독일과 스페인을 이기는 이변도 그 뒤에는 독일에서 프로로 뛰는 일본 선수들이 독일 축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결국은 독일을 지난번 월드컵에 이어 이번에도 16강에서 탈락시키는 연속적인 이변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란이 웨일스를 잡고 승리를 챙긴 것도 유럽 축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슷한 신체 조건에 빠른 축구를 구사하면서 자신들의 축구로 점목시킨 것이 한몫했습니다. 한국도 남미 강호인 우르과이와 대등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르과이를 능가하는 끈끈한 수비 조직력과 악착같은 집중력으로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장면들도 나왔지만, 아시아 축구와 세계적인 실력이 격차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월드컵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삶의 레슨을 받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월드컵에서 선전하는 것은 그냥 이뤄진 일들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한 결과입니다. 축구에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전술과 유연하게 대처하는 나름의 노하우를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에서 결실을 낸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팀의 추축 선수들인 것을 보면서 역시 큰 무대에서 뛰면서 익힌 축구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도전적일 때 더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의 넓이도 더 많은 것을 경험할 때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통해서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드론 공격, 러시아는 미사일 공습

우크라이나가 드론 2대를 이용해 러시아 깊숙이 위치한 공군기지 두 곳을 공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본토 공격은 확전을 꺼리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다. 이번 공격으로 전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라잔 지역의 다길레보 군 비행장과 사라토프 지역의 엔겔스 군 비행장에 소련제 무인 제트기로 공격을 시도했다”며 “이번 공격으로 군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항공기 2대가 드론 파편에 의해 손상됐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의 한 고위관리는 뉴욕타임스(NYT)에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됐고, 최소한 한 대는 목표물에 명중하도록 현지에서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의 안내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타깃이 된 러시아군 기지들은 국경에서 480~720km 내부로 들어간 곳에 있다. 특히 라잔시에 위치한 다길레보 군사기지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160km 떨어져 있다. 함께 공격당한 사라토프주의 엔겔스 공군기지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들이 배치된 전략적 요충지다.



지난 10월 폭발 사건이 발생한 크림대교 복구 현장을 방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 코로나 방역 완화에 위안화 가치 상승·주가 회복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자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고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동안 바닥세를 면치 못하던 중국 경제가 상승 국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시간 5일 오후 4시4분 현재 역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전장보다 0.0970위안 떨어진 6.9565위안, 역외 위안·달러 환율은 0.0720위안 하락한 6.9490위안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위안화 환율이 6위안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9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통신은 “이 같은 위안화 회복세는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방역정책 기조를 ‘봉쇄’에서 ‘통제 완화’로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베이징 상하이 우한 청두 톈진 선전 등 대도시는 대중교통 이용 때나 공공장소 출입 시 의무화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증명 확인을 중단했다.

범(汎)중국 증시도 강세를 보여 이날 홍콩恒生지수는 4.10%,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S지수(HSCEI)는 4.56% 올랐다. 본토 상하이종합지수도 1.76%, 선전성분지수는 0.88% 상승 마감했다. 증시가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일상 회복’ 수혜주 찾기에 나섰다. 상승장 초반에 급등한 여행·항공주, 요식업주 등 대인 소비주와 헬스케어주에 장기 투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중국이 내년에 탄탄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야만 위안화 가치와 증시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또 중국의 ‘리오프닝’ 시기에 관해 최근 경제전문가 1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명이 내년 2분기를, 4명이 1분기를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과거 예측보다 리오프닝 시기를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해당 설문조사는 방역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전인 지난달 30일~이달 2일 이뤄졌다.

한편 블룸버그는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인 비야디(BYD) 등 자동차업체들이 수출 해운의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자체 선박 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산 자동차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에 따르면 BYD는 자동차 수출량 혼란을 피하기 위해 최소 6척의 자동차 운반선을 주문했다. 이들 운반선은 각각 한 번에 자동차 7700대를 운송할 수 있으며 가격은 50억 위안(약 9300억원)에 달한다. 국영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도 각각 8090대를 나눌 수 있는 자동차 운반선 7척의 입찰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올해 들어 260만대의 승용차를 수출하면서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자동차 수출국에 올랐다. 중국 전체 수출이 지난 10월 작년 동기보다 0.3% 줄었음에도 자동차 수출은 60% 가량 증가했다.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의 개발도상국에 자동차를 수출해온 중국은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된 후 유럽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美 IRA에 맞서... EU, 유럽 자체 보조금 도입 시사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두고 미국과 유럽이 삐걱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에 맞서 유럽 자체의 보조금 도입을 시사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경쟁은 좋지만 이런 경쟁에서 공평한 경기의 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되돌아보게 한다”고 말해 자체 보조금 도입을 시사했다. 이어 “IRA는 불공정 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을 닫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미·EU 무역기술위원회(TCC)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와 더 주목된다. TCC 회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격이 강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IRA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치협력국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독일 정부는 (IRA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독일은 무역 전쟁에 나서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경제외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5~9일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IRA 문제를 논의한다. 대표단 일원인 안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레이건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RA 미세조정(tweak) 언급에 대해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조래된 부분에서는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데 대해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고, 한·미 양국이 계속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을지, 최대한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미국 백악관이 IRA 개정예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일부 법안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도 하는 것 같다”며 “어느 수준까지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 대표단은 안 본부장과 국회 윤관석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됐다.

연말 대규모 파업 예고에 英 “군 인력 투입 검토”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는 영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간호사, 구급대원 등 공공부문 필수 인력의 연말 대규모 파업에 대비해 군인을 해당 업무에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 노조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라서 사회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뎀 자하위 영국 보수당 의장은 이날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공공부문 파업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인을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파업으로 시민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지금은 협상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필수 인력이 대규모 파업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임금 인상 문제가 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은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임금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자하위 의장은 BBC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과 물가 상승이 임금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임금 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것이고,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노조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앞서 노동자들은 의료, 교통, 배달, 교육 등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대규모 연발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간호사 노조는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오는 15일과 20일 두 차례 영국 전역에서의 파업을 예고했다. 간호사 노조의 파업은 106년 역사상 첫 전국 규모 파업이라고 BBC는 전했다. 우체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통신노조도 배달 수요가 몰리는 성탄절 기간이 포함된 이달 추가 파업을 발표했다.

리시 수석 영국 총리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여러 여론 조사에서 보수당의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시티 오브 체스터 지역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노동당 후보가 득표율 61%로 22%를 얻은 보수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자하위 의장은 “보수당의 내부 문제가 여론조사의 지지율 격차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1.1%를 기록하며 고통스러운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리스 트러스 전 총리의 감세 정책 발표로 시장이 큰 혼란을 겪은 뒤 지금은 물가 인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 부담을 안고 있다.

반정부 시위 확산에... “이란, 하잡법 완화 검토”

‘하잡 의문사’에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이란 정부가 ‘하잡법’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정부가 풍속 단속을 담당하는 ‘지도 순찰대’를 폐지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모하마드 자파르 몬타제리 이란 법무장관은 “의회와 사법부 모두가 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1~2주 안에 결과를 볼 것”이라고 이란 언론에 말했다. 다만 그는 하잡법의 어떤 내용을 수정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하잡법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헌법적으로 이란은 이슬람 기반이 견고하다”고 했으나 TV 연설을 통해 “유연하게 하잡법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잡법은 이슬람 혁명 4년 후인 1983년 4월 이란 모든 여성에게 의무화됐다. 만 9세 이상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하잡을 착용해야 한다.

이란의 보수파는 여전히 하잡 착용 의무화에 완고한 입장이다. 보수파 수장인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7월 “하잡법을 집행하기 위해 모든 국가 기관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란 개혁파는 “하잡 착용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하잡 착용 의무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모하마드 자파르 몬타제리 이란 검찰총장이 “지도 순찰대는 사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지도 순찰대 폐지 소식을 전했다. AFP통신이 이란 반관영 뉴스통신사 ISNA를 인용해 보도했다. ‘도덕 경찰’로 불리는 지도 순찰대는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취임한 2005년 만들어져 이듬해부터 하잡 착용 검사 등 풍속 단속을 해왔다.

VI. 인간론 (2)

B.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정통 신학자들은 인간의 내적인 특질 (the image of God as an inner quality)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한다. 인간의 정신적인 구조, 이성, 영적인 성질, 인격, 도덕적 인식 (moral awareness) 등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 칼 바르트 및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the image of God as a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ity)에서 찾는다.

레오나드 발두인 (Leonard Verduin)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며 (창 1:27-28), 별카우어 (Berkouwer)와 같은 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representation of God)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맥도날드 (H. D. McDonald)는 아들됨 (sonship)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다.

벌코프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참된 지식 (true knowledge), 의 (righteousness) 그리고 거룩 (holiness)"으로 보았고,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위에 열거된 요인들로 생각한다 (인간의 내면적인 성질, 정신적 구조, 창조성, 도덕성, 관계성, 종교성, 피조물을 다스림, 등).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전적으로 잃게 되었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매우 왜곡되고,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타락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타락후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파괴되었는가? 홍수 후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 9:6)이 말씀에 의하면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 3: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라"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 후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타락 이전과는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다르다. 타락 후에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언어적으로, 관계성

에서도 많이 파괴되어졌다. 타락 후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많이 왜곡되어지고,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잃지는 아니했다. 죄가 우리를 타락시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에서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졌고, 비뚤어졌고, 잘못되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은 현재의 타락되었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 1:31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타락 전의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한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

고 궁극적으로 파괴시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 1:27). 창 5:1-2에서도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규례이

해서는 모두 동의한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비물질적인 부분(immaterial part)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동의한다. 그러나 비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1) 삼분설(trichotomy)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구성 요소는 육체(body)와 혼(soul)과 영(spirit)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혼은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영은 기도와 예배를 포함한 하나님과의 관계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죽을때에 "그 혼(soul)이 떠나려 한다" (창 35:18) 했고, 시 31:5, "나의 영(spirit)을 주의 손에 부탁하이다"

눅 12: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soul)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스테반의 죽음에서 행 7:59,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spirit)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은 사람을 "몸과 혼" (Body and Soul) 혹은 "몸과 영" (Body and Spirit)이라고 칭한다.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soul)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soul)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고전 5: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spirit)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성경은 혼이 하는 일을 영도 한다고 가르친다.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과 혼의 차이를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생각하고, 연구하는 지적인 기능과,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기능은 영과 혼이 모두 동일하게 한다 (행 17:16; 잠 17:22; 막 2:8). 그러므로 사람의 비물질적인 측면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영"과 "혼," 이 두 용어의 차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spirit)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 등 하나님과 관계에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성경에는 우리의 혼(soul)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영이 예배함을 가르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soul)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 25:1) "나의 영혼(soul)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니라." (시 62:1) "내 영혼(soul) 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 103:1) "할렐루야 내 영혼(soul)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 146:1)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soul)이 주를 찬양하며"(눅 1:46) "여호와 앞에 내 심정(soul)을 통한 것뿐이오니." (삼상 1:15)

성경에는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영이 하는 것을 혼이 하고, 혼이 하는 것을 영이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신(물질적인 부분)과 영혼(혼 혹은 영,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다음 시간에는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12)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으며 (성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혹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완전히 회복되어진다 (영화).

C. 남자와 여자의 창조

오늘날 미국과 서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남자와 여자의 성(gender)을 해체(deconstruction)시키는 일이다. 의학의 발전으로 남자와 여자를 인간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다 (transgender). 남자와 여자는 성(gender)을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2년 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대통령 행정명령 (President's executive order)은 "성을 결정하는 주체는 당신 자신이다" (It is you who determines gender). 부모, 국가, 사회, 등 누구도 당신의 성(남성, 혹은 여성)을 결정할 수 없다. 바로 당신 자신만이 자신의 성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즉 내가 나를 남자로 규정하면 남자이며, 여자로 규정하면 여자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창조의 규례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항하는 일이다. 인류의 가정을 근본적으로 허물고 있

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다.

1)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Men and women are made equally in God's image) (창 1:27; 5:1-2).

2) 그러나 남녀의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Differences in Roles)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신성과 영광과 능력에서는 동등하지만 (equality), 그러나 삼위의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다. 구속 사역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구속주로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부께서 계획하신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고(redemption accomplished),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을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적용시키신다(redemption applied). 성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역할과 사역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와같이 남자와 여자도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역할과 사역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원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잘 적용되어야 한다.

D. 인간의 구성적인 본질 (The Constitutional Nature of Man)

인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

2) 이분설(dichotomy)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영과 혼은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을 지칭하는 동일한 의미인 호환적인 용어이며, 인간에게는 몸과 영혼(혼 혹은 영), 두 부분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분설을 지지한다. 성경은 영과 혼의 단어를 호환(interchangeable)해서 사용한다.

예수님께서 영(spirit)과 혼(soul)을 호환해서 사용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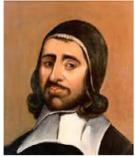
요 12:27, "지금 내 마음(soul)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 13: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spirit)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눅 1:46-47의 마리아의 찬양에도 이와 같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soul)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spirit)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리고 죽어서 천국 혹은 지옥에 간 사람들을 "영들"이라고 했고 (히 12:23; 벧전 3:19), 그리고 동시에 "혼들"이라고 이라고 칭했다 (계 6:9; 20:4).

성경에는 사람의 죽음의 순간에 "혼(soul)이 떠나다, 혹은 "영"이 떠나다 라고 혼용하여 사용 한다. 라헬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and various regional churches like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 '뉴욕새사람교회', etc. Each entry lists the pastor's name,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1)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들어가며]

회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내가 회심했다'는 말은 구원과 관계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회심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회심했다는 것은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눅 10:20)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회심이란 위대한 사건이 한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그 회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과 중요성과 긴급성을 전함으로 자신처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들은 자신이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의 회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습관적이며 형식적으로 교회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향해 지성과 열정과 모든 힘을 다하여 회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교했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귀하게 사용된 책이다. 청교도 시대의 다작가이며 목회적이고 실제적인 백스터의 저술로서 후대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읽혀진 책이다. 청교도들은 회심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회심에 관한 모든 가능성과 모든 주제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견지하며 그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철저하게 다루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믿었던 청교도들은 회심한 이후의 복을 제시하기 전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철저히 다룸으로써, 죄를 인식하는 깊이만큼 구원의 깊이를 안다고 믿었던 까닭이다. 또한 인간이 회심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서도 단 순히 예수 믿고 난 다음 이 세

상에서 받는 현재의 복의 내용보다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회심하지 않은 명목상의 교인들에게 회심의 진리를 분명하게 전달하여 회심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회심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으며, 회심한 이후의 지금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충분히 깨닫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역자들에게는 자신이 목양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모두 회심하여 구원받은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저자가 가진 구원의 열정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1.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

1) 백스터의 회심(A Call to the Unconverted)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였던 백스터가 15세가 될 무렵, 그 당시 시대 상황은 한마디로 '부패' 그 자체였다. 성직자의 도덕적, 영적 타락과 교인들의 세속화로 인하여 교회 전반에 총체적인 부패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스터는 1630년 15세 때에 아버지의 영향으로 성경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다.

2) 그의 목회

백스터는 국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1641년 4월 26세 때부터 1660년 4월 45세까지 키더민스터에서 12년 9개월간 사역하며, 그 기간 동안 인간의 사역이 100여 년이 지난 뒤까지 모범적인 목회의 영향력을 미쳤다. 백스터는 국내전도 뿐만 아니라 해외선교에도

열정적 관심이 있었다. 복음전파선교회를 설립하는데 주역을 맡았고, 인디언 선교사 존 엘리엇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조지 핏필드는 백스터의 가르침과 사역에 찬사를 보냈다. 1641년부터 키더민스터의 목회는 그 지역 전체가 변화될 정도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3) 그의 활동

청교도 혁명 때는 의회파에 속하여 크롬웰 군의 군목으로서 일했다. 왕정복고 후 찰스 2세가 궁정 사제로 선임하고 국교회 주교직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1662년 통일령의 공포와 함께 국교회를 떠나 박해를 받으면서 비국교도 목사로서 설교를 계속하였는데 1685년 국교회를 중상했다는 이유로 18개월간 투옥되기도 하였다. 신앙심 깊고 용기 있으며 재능이 뛰어난 이 청교도를 한 마디로 잘 표현한 것은 키더민스터의 교인들과 비국교도들이 세운 그의 기념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41년부터 60년까지 이곳은 리처드 백스터의 일터였다. 이제 여기는 그의 기독교적 지식과 목회적인 충실로 인해서 그와 동등하게 유명하게 되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분열의 시대에 그는 일치와 이해를 옹호하였고 영원한 평안의 길을 제시하였다" 급세기 최후의 청교도라고 불리는 제임스 패커는 리처드 백스터를 가리켜 청교도의 실제적이고 경건한 가르침을 가장 잘 전한 목회자 전도자 저술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목회 좌우명으로 삼았으며, 1691년 12월 8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150편의 논문을 썼고 미발표된 몇 백 편의 서신과 글을 남겼다

4) 그의 신학적인 혼합

백스터의 작품들은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특이한 혼합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작정, 속죄, 칭의의 교리에 있어서 개혁주의적 견해를 가졌다고 볼 수 없는 몇몇 청교도 중의 한 사람이었다. 비록 그가 대체적으로는 그의 신학을 개혁주의의 라인을 따라 형성하기는 했지만 매우 자주 아르미니우스(Arminius)적 사조에 기울어지고도 했다. 그는 아르미니우스주의(Amyraldism)자들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가정적 일반 속죄론(Post-redemptionism, Hypothetical Universalism)을 포함하는 그들의 사상에 자신의 생각을 조합시켰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가정적으로 돌아가셨지만 그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실제적 유익을 준다는 가르침이었다. 칭의의 교리에 대한 백스터의 접근법은 신 율법주의라고 불린다. 그는 하나님이 옛 율법을 깨뜨린 것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법을 주신다고 말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이 새로운 율법은 믿음과 회개인데 이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에 의해 유지되어 신자 자신의 개인적이고 구원을 얻는 의로움이 된다는 것이다. 백스터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가 율법폐기주의로 가는 것을 우려하여 신율법주의를 주장하였는데, 그의 신율주의(Covenantal Noimism)는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여 최종적으로 칭의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율법의 교훈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잘못된 교리들은 그가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 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주로 작성한 경건 문헌들에는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younsuklee@hotmail.com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대~~한민국!!!!!!

이민자로 미국에 거주지 올해로 27년째다.

이민 가방 몇 개와 박스들을 들고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다. 그날이 주말 오후였고 전기 회사와 연결을 할 수 없어 아파트 외등에 의지해 희미한 불빛 아래 맥도날드 넘버 원, 박맥을 시켜 집 삼자를 식탁 삼아 저녁 식사를 했다. 땅거미가 질어질수록 서로의 얼굴을 잘 볼 수는 없었지만 함께한 기쁨만큼은 앓아가지 못했다. 세월은 흘러 자녀들은 훌쩍 커버려 책임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까만 머리숱이 가득했던 남편은 현저히 줄어든 술에 어느새 함박눈을 머금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오랜 기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모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다. 미국 뉴스보다도 한국 뉴스를 매일 시청하며 나라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모국을 위한 기도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 3차전에서 대한민국은 포르투갈을 상대하게 되었다. 국제 축구 연맹(FIFA) 공식 순위 9위인 포르투갈과 28위 한국의 게임에 누구도 한국의 승리를 예단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길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일말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으로 소원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2대 1로 이겼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어왔다. 화면에 비치는 한국 응원단들의 기쁨의 눈물은 전기가 되어 또다시 마음을 울컥하게 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12년 만에 일궈낸 16강 진출의 쾌거 앞에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은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다.

요즘 언론에 비치는 한국의 정치를 보면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다. 포르투갈 전에 투입된 대한민국 국가 대표 선수들은 모두 개인기가 뛰어나지만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자기의 힘을 조율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희미한 빛 같아 보이던 승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현실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벗어나 하나 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서로 힘을 조율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

고등학교 다닐 때 외치던 구호가 있다. "대구를 살리자! 민족을 구하자! 세계로 나가자!" 청소년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담임 목사님은 이 구호를 자주 외치게 했다. 이 외침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내 마음에 남아있다.

모국을 떠나 이민자로 오랜 세월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때의 외침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의가 물갈이 공기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당리당략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우대 받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외친다. 대~~한민국!!!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and 3 rows of church listing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 Includes churches like Galbraith, Danjok, Hongmei, etc.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회)

<월드컵을 바라보며>

4년 만에 찾아오는 월드컵은 온 세상 사람들이 축구팬이 되게 하는 매력이 있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 월드컵은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

라, 나라의 축구협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 211개 국가의 대표팀 중에서 치열한 지역 예선을 거쳐 32개국을 걸러내고, 또 더 치

열한 조별 예선을 거쳐 16개국만이 16강에 들어가는 과정은 참으로 드라마틱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월드컵에는 한국도 16강에 들게 되었으니,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시작 전부터 엄청난 로비자금을 썼다는 이야기, 경기장 건설에 외국인 노동자를 너무나 혹사시켰다는 이야기, 심각한 환경 파괴가 있었다는 이야기 등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느냐는, 일단은 한국의 16강 진출의 과정에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한국의 첫 번째 경기였던 우루과이와의 일전은 너무나도 속상했다. 물론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컸지만, 거의 대등하게 경기가 이뤄졌기에 '한 골만 더 졌다면 승리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두근두근 남았다. 축구는 결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뼈를 깎는 훈련과 노력의 과정이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물론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라는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곧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 없다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 결과가 주어질 수 있을까? 천국에 이르기까지 매일 매일 믿음의 단련을 해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원한다.

두 번째 경기였던 가나와의 경기는 이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는 달리 2-3으로 패했다. 꼭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조급함이 일을 그르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주님께

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결과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 아닐까? 부담감과 조급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루하루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까?

세 번째 경기인 포르투갈 전을 앞두고 경주의 수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강도 포르투갈을 이긴다고 해도 다른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16강 또는 탈락이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너무나도 놀랐게도 그 복잡한 경우의 수와 11%밖에 안 된다는 확률을 뚫고 16강에 진출했기에, 혹자들은 운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마치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삶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나의 최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덧입혀질 때, 인생에 빛이 나게 된다.

이 글이 신문에 실릴 때쯤이면 브라질과의 16강전은 끝나 있을 것이다. 이기든 지든 그 결과가 어떠한 상관없다.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축구 선수들의 멋진 모습을 본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16강전을 치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것 아닐까? 우리들의 삶도 너무 높이 올라가려는 욕심으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 주신 선물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본다. 바울사도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떠올리며, 오늘도 내 일상 속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원한다.

wmclakim@gmail.com

미주장신대, 한목상한기상 통합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 체결 후 감리교신학대학교 웨슬리 채플 앞에서 맨 앞줄 한목상 김기철 회장과 한기상 오화철 회장,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한기상 이영진 부회장, 이상명 총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지난 11월 26일(토), 오전 10시에 감리교신학대학교 웨슬리 채플에서 개최된 한국목회상담협회(이하 한목상)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이하 한기상)의 통합식에서 두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목상과 한기상은 한국 내 가장 대표적인 두 기독교 상담 학회로서 이번 통합 선포식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다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 학회 가 보유한 수준 높은 전문 상담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일에 함께 전력을 할 것 을 합의하였다.

이번 통합식에서 한목상과 한기상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와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아래 다섯 가지 공동사

역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양 기관의 연구 내용 및 학술 교류, 양 기관이 뜻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개최 및 연구, 양 기관의 지부설립과 및 공동 세미나 개최, 양 기관의 기관인증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상담학과 학생들은 두 기관이 발급하는 1급 및 2급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미주장신 중심의 한목상과 한기상의 지부를 남가주 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미주장신대는 현재 상담심리 석사(M.A.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외에도 결혼과 가정치유학 석사(M.A.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과정과 전문코칭 석사(M.A. in Professional Coaching) 과정과 교역학 석사 전문원목 집중(M.Div. - Professional Chaplaincy)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기사제공: 미주장신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11대 김판호 총장 취임식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베데스다대학교 제11대 김판호 총장 취임식

"미래시대에 걸맞은 인재육성을 위해 힘쓸터"

베데스다대학교 11대 김판호 총장 취임식이 5일(월) 오전 10시30분에 애나하임 구세군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판호 총장은 "베데스다대학교는 오순절신학의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탄생한 학교"라며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으려고 하며 이를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를 위해 첫째 2030년까지 학

교의 미래교육 방향을 구체화 하겠다. 이를 위해 미래시대에 걸맞은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두 날개로 나아간다"며 "정확한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다양성 속 독창성을 중시하며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고 사역속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인재 길러내겠다. 이를

위해 ATSS와 WASC 정회원 인가를 받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두번째 교육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셋째 대학재정의 확대와 재무건전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루시 김 교수(교무과장) 사회로 시작된 총장취임식은 교무과장이 이사, 북미총회 관계자, 지역교회 목회자, 그리고 학생들을 소개했다. 이어 최용우 목사(여의도순복음 신안산교회)가 맡음봉독했으며 김경문 목사(여의도순복음중동교회)가 여호수아 1장9절 말씀을 전했다. 이어 이어 김용준 목사(여의도순복음 도봉교회),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엘리세오 시멘탈 목사(크리스천가족교회, 미국 하나님의성회 총무)가 축사했다. 이날 취임식은 안현 목사(달라스 안디옥순복음교회, 총회장)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본교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기도했으며 황선욱 목사(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가 성경봉독했으며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빌 2:1-5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나성순복음교회 이영훈목사 초청 축복성회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이영훈 목사(순복음세계선교회이사장)초청 LA축복

성회를 5일 오후 6시 은혜가운데 개최했다.

진유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축복성회는 임태욱 목사(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담임)기도와 정홍은 목사(순복음성동교회담임) 성경봉독, 설교 이영훈 목사, 헌금기도 안 현 목사(순복음 북미총회 총회장) 축도 이영훈 목사로 진행됐다.

이목사는 '믿음의 역사'(히 11:1-6)란 제목으로 "이 교회는 눈물의 기도가 쌓인 곳이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하며 설교를 이어갔다. 그는 "58년 전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 놓으며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았다. 내가 어릴 때 조 용기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는 매일 '성령 받으라'는 말이였다. 어릴 때 그 소리가 뭉치 못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내 인생이 바뀌었다. 성령 받고

나니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 기쁨이 없었다. 성령충만의 역사는 결국 예수를 전하는 역사임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믿음이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라며 "꿈꾸는 사람들이 비전을 창조해 나가고 거룩한 꿈을 꾸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우리 모두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의 역사를 이뤄 가자.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우울증과 자살 급증이다. 하루에 40명씩 자살 하고 있다는 통계다. 우울증의 종착역은 자살이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뿐이다. 보혈잔량으로 병마를 이기자. 마음에 두려움 염려가 찾아올 때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찬양을 부르며 물리치고 승리하라.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훈 목사는 나성순복음교회 3대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담임, 순복음세계선교회 이사장,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겸손과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최초 입양 라이선스 획득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최초 입양 라이선스 획득

입양부모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과 사후 관리까지 서비스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케서린 염)는 지난 11월15일(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양 에이전시 라이선스를 주정부(California Community Care Licensing)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최초로 아시아 아동과 입양가정을 전문으로 하는 입양 에이전시 라이선스를 획득한 것이다. 미국 전역에 3천여 곳의 입양 에이전시가 있으나 모두 영어권 에이전시로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한인가정상담소가 유일하다. 2019년 2월에 라이선스 지원서를 제출하여 2022년 9월 14일에 최종 승인 받았다. 한인가정상담소는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동지 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2017년, 미국 내 최초로 아시아 위탁아동과 가정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가정 에이전시(Foster Family Agency·FFA)를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아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에이전시 자격을 획득했다. 이번 입양 라이선스 취득으로 위탁에서 입양

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입양 라이선스 획득 전까지는 한인가정상담소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다가 입양수속을 밟게 될 때 LA 카운티 아동보호국(DCFS)이나 다른 입양 에이전시를 통해 최종 수속을 밟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입양부모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과 사후 관리까지 모두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케서린 염 소장은 "위탁아동이 입양가정을 찾게 될 때 문화적 언어적 특수성을 고려한 가정을 찾아주는게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며 "이번 라이선스 획득으로 저희 한인가정상담소를 통해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님과 평생가족이 필요한 아이들의 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탁을 통한 입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인입양(Private Adoption)과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생모(Birth Mom)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

고 단계적으로 국내의 입양 및 매칭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입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kfamla.org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이메일 affi@kfamla.org 나 213-529-9245로 연락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 특별새벽부흥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특별새벽부흥회가 열리고 있다. 12월3일 새벽집회는 노진준 목사(순회설교자)가 강사로 나서 '믿음(요 11:17-2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노진준 목사는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다시 산 것은 단지 나사로와 도르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그들의 다시 산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각종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매우 나약해 보이며 믿음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마르다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들의 상황은 괜찮지 않지만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

우셨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고백, 그리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그리스도사 회복해야 할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서는 그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작정하셨기에 교회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민음을 확인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가주사랑의 교회 특별새벽부흥회는 지난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차준희 교수(한세대 구약학교수),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 노진준 목사(순회설교자), Josh Canales 목사(Mission Ebenezer Family Church), Ben Shin 교수(탈북신학교 기독교사역), Andy Kim 목사(HolyWave Lead), Eddie Byun 교수(탈북신학교 목회학 박사 디렉터), Joel Kim 교수(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등이 강사로 초빙됐다.

(이성자 기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LA축복성회.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이영훈목사(왼배)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한인목사회 이취임식

뉴욕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제51회기 취임식 및 50회기 이임식이 12월 12일(월) 오후 5시에 하크네시야교회(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회장 김홍석 목사 646-287-7169, 총무 박희근 목사 917-254-0887

뉴욕-뉴저지 Youth & Young Adult 집회 (ACE)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ACE(Adullam Community in the Endtime)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며 뉴욕-뉴저지 다음세대인 Youth & Young Adult를 위한 집회를 "TRUE IDENTITY (진정한 정체성)"라는 주제로 뉴욕천성장로교회(신두현 목사)에서 12월 29일(목)-30일(금)에 개최한다. 모든 집회는 영어로 진행 될 예정이다. 뉴욕 천성 장로교회 주소: 58-30 193rd. St. Queens, NY 11365 강사: 정진원 (Jin W. Chung) 전도사. 현 뉴욕장로교회 유치부 전도사

▲문의: ACE 집회사업 위원회 정병길 목사 (989-971-2877), ACE EM 사무국장 장의기 전도사 (646-457-2027)

더나눔하우스 쉼터구입 후원모금 행사의 밤

지치고 소외된 한인 노숙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시 살 소망을 심어주는 미주한인노숙인 비영리전문기관 더나눔하우스에서 후원모금 행사의 밤을 12월 11일(주일) 오후 5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개최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203-05 32nd Ave, Bayside, NY 11361

▲문의 및 예약: 718-683-8884, 718-683-8886

2022 크리스마스 문화 콘서트

라이프라인미션 주최로 2022 크리스마스 문화 콘서트가 "Christmas / JOY TO THE MESSIAH"라는 주제로 12월 18일(주일) 오후 5시에 뉴욕예림교회(이영희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예림교회 주소: 25-33 154th St Flushing, NY 11354

▲문의 및 예약: 929-600-3199, 미션블로그 lifeline2030.blogspot.com



생전 시 낭독을 하는 故 조의호 목사

뉴욕교계의 시인 조의호 목사 별세

뉴욕교계와 함께 하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축시 남겨

뉴욕교계의 시인, 조의호 목사가 12월 4일(주일) 오후 3시 30분에 8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조 목사는 1939년 경산 출생으로 계명대 철학과와 동아대 영어영문학과를 거쳐 총신대 졸업 후 1966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20년 간 육군 군목으로 사역 후 1989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뉴욕성화교회를 개척했으며 제33대 뉴욕목사회 회장, 2018년도에는 세계예수교장로회(WKPC)의 총회장, 미주기독교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3년 문춘문

학신인상에서 시 부문에 당선되면서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2017년에는 서울창조문학과와 한국창조문학회가 주최한 제22회 창조문학대상 신인문학상에 당선되기도 했으며 뉴욕교계에 활발히 활동하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축시들을 헌납해 왔다.

유가족으로는 배우자 사모 사이의 조한경 목사 등 2남 1녀를 두었다. 장례예배는 12월 8일(목), 발인예배 및 하관예배는 12월 9일(금) 오전에 치러졌다.

(김재상 기자)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너싱홈 성탄절 위문공연

플러싱 유니온 너싱홈을 방문해 찬양과 동요 불러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단목 이만호 목사, 회장 이진아 목사, 단장 박영희 목사)은 11월 30일(수) 플러싱에 있는 유니온 너싱홈(Union Plaza Care Center)에 계신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하여 성탄절 위문 공연을 가졌다. 크로마하프연주단은 한복을 입고 찬송가와 복음성가인 '이 시간 주님께', '스바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의 길을 가리', '하나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이어

동요와 민요, 그리고 명곡으로 '고향의 봄', '에델바이스', '아리랑', '도라지타령', '과수원길', '사랑해'를 부르며 어른들이 마음을 고향과 동심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어 크리스마스 성탄절곡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탄일종', '창 밖을 보라', '복치는 소년', '꾸며보세 크리스마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천사들의 노래' 등을 해 기쁨을 안겨주었다.

(김재상 기자)



2022 청소년센터 음악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

뉴욕교협청소년센터 음악회

"다음 세대들이 함께하는 음악회"

뉴욕교협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는 12월 4일(주일) 오후 5시 친구교회(시무 반상석 목사)에서 2022 청소년센터 음악회를 열었다.

청소년센터 음악회는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음악회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음악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개최하게 되었다.

청소년센터는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김홍석 목사(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회장) 기도와 감회진 사화로 시작된 음악회는 맨하탄 음대학생들로 구성된 NY Pillar Church Chamber Orchestra의 오프닝 무대 연주 시작으로 다양한 그룹의 합창, 악기 연주로 진행됐다. 퀸즈칼리지 예비 음대 합창단 (지휘 이선경),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준 CPSM Voice 4중주, 이민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문화적, 정신적, 사회적 차이를 연결하

는 다리 역할을 하여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목표를 가진 팀으로 구성된 The Bridge Singers of NY, 프라미스 청소년 국악 선교팀, 각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성악 전공자들과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케리그마 남성 중창단의 찬양이 있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고등학생까지 구성된 합창단NYQYC은 이날 후러싱제일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부모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개인 연주로 브롱스 사이언스 Jayden Lee 섹스폰 연주, Shiloh Yi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다. 마지막 어린 친구들이 모두 나와 곧 다가올 예수님의 성탄을 위한 찬양을 통해 "작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실것"이라는 희망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했다.

Paul Yoo 목사(뉴욕기독교회 EM) 헌금기도, 박윤선 목사(뉴욕 어린양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뉴저지 선교사의집 오프닝 감사 예배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뉴저지 선교사의집 오프닝 감사예배

2개월 간수리 후 뉴저지 숙소 제공, 서비스 시작

뉴저지 선교사의집 오프닝 감사예배가 12월 4일(주일) 오후 5시에 뉴저지 새들 브룩(Saddle Brook)에 있는 밀알선교센터에서 드러졌다. 선의선교회 회장 최문섭 장로는 2002년부터 기도하며 2007년에 뉴욕선교사의집을 시작했다. 뉴욕을 방문한 선교사를 중심으로 연인원 1만여 명이 이용했으나, 사용하던 건물이 팔리며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이후 뉴욕의 교회와 선교단체들과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뉴욕에 앞서 뉴저지에도 선교사의집을 오픈하게 되었다.

뉴저지 선교사의집은 뉴욕 선교사의집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사재를 털어 도운 윌로 이용길 목사의 중재로 뉴저지밀알선교단(단장 강원호 목사)의 건물을 사용함으로 이루어졌다. 뉴저지선교사의집은 2개월여 새로운 수리와 보수를 거쳐 현재 6개의 방을 선교사와 뉴저지를 방문하는 이민 목회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프닝 감사예배에는 뉴저지 대표로 세워진 퀸즈한인교회 은퇴장로인 백남걸 장로의 사화로 진행됐다. 예배는 기도 강원호 목사(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바이올린 연주 정인

국 장로(선의선교회 이사장), 설교 김바나바 목사(퀸즈한인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바나바 목사는 "오늘 여기 선지자의 상을 받을 곳(마태복음 10:40-4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용길 목사(필라델피아교회 원로목사)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가 축사를 했으며, 박형은 목사(한국컴패션)와 김학진 목사(뉴욕장로교회)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류인현 목사(맨하탄 프론티어교회)의 헌금기도 후에 찰스 리(퀸즈한인교회 사랑의교실)가 축하 연주를 했으며, 최문섭 장로(선의선교회 회장)가 인사를 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박근재 목사(뉴저지교협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재상 기자)

2022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생명을 구하는 꿈, 희망을 주는 꿈, 함께하는 꿈"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이스라엘 목사) 2022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이 12월 4일(주일) 오후 5시 에벤에셀선교회(시무 최창섭 목사)에서 열렸다.

국제기아대책기구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71년에 설립된 국제 민간단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역에 힘을 쓰고 있다. 이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해외아동결연사업"에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전희수 목사(상임고문) 사회로 시작된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은 1부 예배, 2부 사역소개로 진행됐다.

살롬 찬양팀(김봉규 목사/송금희 강도사)찬양으로 시작된 1부는 한필상 목사(홍보국장) 기도, 김인한 장로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박이스라엘 목사(회장)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창 37:5-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이스라엘 목사는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구원하는 꿈,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꿈, 하나님이 함께하는 꿈이 있다"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해야 하며 어디를 가든지 칭찬과 할 수 있다는 권면, 잘 할 수 있다는 후원으로 아름다운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한준희 목사(기획국장)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는 유상열 목사(상임고문) 사회로 시작돼 권캐더린 목사(상임고문) 기도, 박진하 목사(사무총장) 사역보고, 박이스라엘 목사 회장 인사, 황동익 목사(고문) 축사, 육민호 목사(선교국장) 후원안내, 성음 크로마하프 선교단 헌금특송, 조성숙 목사(협력국장) 헌금기도, 박성원 목사(사업국장) 광고, 이종명 목사(고문)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을 마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웨스트체스터목사합창단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웨스트체스터목사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찬양하며 위로하며" 팬데믹 후 2년만에 다시 열려

웨스트체스터목사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가 12월 4일(주일) 오후 6시에 웨체스터연합장로교회(전구 목사)에서 열렸다.

웨체스터 지역은 20여 년 전부터 자체 교회를 구성하고 목회자들의 정기모임, 연합부흥집회 등의 연합사업을 해 오다 단장 노성보 목사 등을 중심으로 목사합창단을 구성했다. 2019년에는 제1회 연주회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주제로 열려 특히 성도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교회와 이웃들에 시선을 돌리며 "찬양하며 위로하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목사합창단 목사들은 음악회를 마치며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는 특별기도를 하기

도 했다. 장효종 지휘자와 이현주 피아니스트가 참여한 가운데 웨스트체스터목사합창단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는 나의 피난처', 'Halle Halle Halle', 휘파람 찬양, '칼립소 영광', 'The Hand Song(손뼉을 쳐)',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협주곡 등을 찬양했다. 게스트로 소프라노 하현주의 독창, 그리고 바이올린 양대진과 첼로 양대일의 연주가 진행됐다. 2회 정기연주회에는 테너 6인(신성근, 최기욱),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교회와 이웃들에 시선을 돌리며 "찬양하며 위로하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목사합창단 목사들은 음악회를 마치며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는 특별기도를 하기

도 했다. 장효종 지휘자와 이현주 피아니스트가 참여한 가운데 웨스트체스터목사합창단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는 나의 피난처', 'Halle Halle Halle', 휘파람 찬양, '칼립소 영광', 'The Hand Song(손뼉을 쳐)',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협주곡 등을 찬양했다. 게스트로 소프라노 하현주의 독창, 그리고 바이올린 양대진과 첼로 양대일의 연주가 진행됐다. 2회 정기연주회에는 테너 6인(신성근, 최기욱),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교회와 이웃들에 시선을 돌리며 "찬양하며 위로하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목사합창단 목사들은 음악회를 마치며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는 특별기도를 하기

도 했다. 장효종 지휘자와 이현주 피아니스트가 참여한 가운데 웨스트체스터목사합창단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는 나의 피난처', 'Halle Halle Halle', 휘파람 찬양, '칼립소 영광', 'The Hand Song(손뼉을 쳐)',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협주곡 등을 찬양했다. 게스트로 소프라노 하현주의 독창, 그리고 바이올린 양대진과 첼로 양대일의 연주가 진행됐다. 2회 정기연주회에는 테너 6인(신성근, 최기욱),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교회와 이웃들에 시선을 돌리며 "찬양하며 위로하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목사합창단 목사들은 음악회를 마치며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는 특별기도를 하기

(김재상 기자)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마커스 소진영 찬양사역자 간증집회

인생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백

마커스 찬양인도자 소진영 간사 간증집회가 2일(금) 저녁 7시45분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에서 열렸다. 김태형 목사 기도로 시작된 간증집회는 소진영 간사가 그의 인생의 고난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으며, 마커스에서 찬양인도자로 사역을 하게 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었다. 소진영 간사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자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피아노 반주자, 찬양팀 싱어, 주일학교 교사 등 교회봉사를 하며 소위 ‘교회언니’라는 타이틀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며 “인생의 첫 좌절은 19세 때 대학교 입학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은 지난 2005년 추석 무렵 몸이 아파 병원진찰을 받았



소진영 간사와 청중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을 때였다. 당시 무균실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리게 된 것으로 골수 이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식을 받게 되면 결혼 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에 10년간 글린백이라는 약을

복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찬양하며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어 오디션을 통해 마커스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었다”라며 “출산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를 가졌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을 끊는 임상에 참여하

고 있다. 기능적 완치가 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냥 가고 있다. 병원에 가면 남녀노소가 동일하게 음식을 입안에 한 수저를 넘기기 위해 수개월간 누워있는 자들이 많다”라며 “재활병원에 가면 한걸음 가려고 노력하지만 못 걷는 자들도 많다. 이는 이웃 친척 가족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부족한 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진영 간사는 ‘주 은혜, 오직 예수 뿐이네’, ‘실로암’, ‘꽃들’ 등을 불렀다. 또한 찬양사역자 이실라 씨가 찬조 출연하여 ‘성령이 불타는 교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를 불렀다. 이날 집회는 김태형 목사가 소진영 간사와 마커스 사역에 대해 합심기도를 인도한 후 축도로 마쳤다. 한편 3일(토) 남가주동신교회에서 마커스 소진영 간사가 찬양집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2022 후원의 밤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소망소사이어티 2022 후원의 밤

15주년 기념 구슬 자서전 ‘바람꽃’ 1호 발간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2022 후원의 밤이 3일(토) 오후 5시30분 세리토스 퍼포밍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유분자 이사장은 “소망소사이어티가 15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소망을 통해 5000명의 후원자가 세워지고 아프리카에 학교도 세우고 신신기증자도 만났다”며 “소망을 창립할 때만해도 15주년을 생각할 수 없었다. 죽음을 맞이할 인식이 없을 때였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15년을 맞이할 때 의미 있는 기념사업을 하고 싶었다. 후원자들과 봉사자들 개개인 삶에 의미를 남기는 일을 하고자 했다. 그것이 구슬자서전 ‘바람꽃’이다. 이민1세대를 돌아보면 사연 없는 삶은 없다. 자서전 구슬희망자 모집부터 출판까지 도전의 연속이었다. 성공적으로 바람꽃 1호가 나왔다. 구슬자서전 사업은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반채근 목사(씨미밸리한인교회) 사회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1부 구슬자서전 출판식, 2부 만찬, 3부 새로운 도약, 4부 공연으로 진행됐다. 김도민 목사(라팔마연합감리교회) 기도, 소망중앙단이 소망의 노래를 불렀으며 구슬자서전 ‘바람꽃’ 소개 영상, 유분자 이사장이 환영 인사를 했다. 이어 김영완 총영사의 축사를 최하영 교육영사가 대독했으며 이목자(바람꽃 저자 대표)가 소감을 나눴으며 이장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가 서평했다. 이어 소망중앙단이 특송했으며 최경철 원목(소망소사이어티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신혜원 박사(소망소사이어티 고문, UCI MIND 치매연구소)가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유분자 이사장이 최경철 사무총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날 행사는 아르모니아 싱어즈가 무대에 올라 특별순서를 가진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엘피스 가정사역원 제7회 뱅킷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

엘피스 가정사역원(대표 박운송 목사) 제7회 뱅킷이 5일(주일) 오후 5시30분 옥스포드 팰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호용 목사(LA복음연합감리교회)가 기도했으며, 김웅민 목사(이사장)가 ‘하나님의 동역자(출 2:1-1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웅민 목사는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출애굽기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개입하신다”며 “엘피스사역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신앙은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하시는 것이 아닌 지금도 이

곳에서 일하면서 동역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여러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함께 일할 자를 찾으신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김낙인 목사(남가주주님교회)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만찬에 이어 열린 3부 순서는 박운송 목사가 엘피스가정사역원 사역자 소개, 황은지 선교사(이집트) 간증, 정지혜 사모의 엘피스가정사역원 사역보고, 이경민 간사 회계보고가 있었다. 이어 미니콘서트 가 있었는데 신혜원 사모의 시낭송, 바리톤 크리스방, 소프라노 김미경 사모가 찬양했으며 전현주 집사의 바이올린 연주, 엘피스 임원들의 특송이 있었다. 이날 뱅킷은 참석자들이 함께 찬양곡 ‘행복’을 부르뒤 림박춘 목사(라구나힐스한인교회)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중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추대식과 국윤권 담임목사 위임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격려와 지지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중현선교교회 민중기 원로목사 추대 및 국윤권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4일(주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이날 원로목사 추대민중기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중현선교교회는 평생 오랫동안 다닌 교회이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교회다. 유학생으로 온 저희 가정을 교회에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삶은 정직함에서 신학자로 노선을 바꾸게 했다. 한국에서 교수로 있던 저에게 목회요청을 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학자의 사명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사랑의 빛진자로 만들어주신 중현선교교회 요청에 기도를 해야 했고 응답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경험 없는 목회자였지만 성도들의 격려와 지지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담임목사로 위임된 국윤권 목사는 “14세 때 이민온 후 아버지가 이민교회 목회자여서 이민교회에서 자라게 되었으며 이민교회의 꿈을 가졌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국목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게 역사하신다.

중현교회가 주님의 신실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민중기 목사 사회로 열린 담임목사 위임식은 박규성 목사(KAPC서남노회 위임국장)가 국윤권 목사와 중현선교교회 교인들에게 서약, 담임목사 안수식, 공포로 이어졌다. 그리고 송상철 목사(새한장로교회)의 권면과 권준 목사(씨에들링제교회)의 축사가 영상으로 소개되었으며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가 축사했다. 이어 담임목사 위임패 및 선물증정 시간을 가졌으며 국윤권 목사가 답사했다. 국윤권 목사 사회로 열린 원로목사 추대식은 이준우 장로(본교회 당회 부서기)가 원로목사 추대사를 했으며 국윤권 목사가 공포했다. 이어 원장수 목사(올림픽장로교회)가 권면했으며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원로)가 축사했다. 그리고 원로목사패 및 선물증정, 민중기 목사 답사, 교역자 부부 합창단이 특송했으며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림교회)가 축도했다.

한편 이날 담임목사 위임식과 원로목사 추대식 전에 민중기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김광호 장로(본교회 원로)가 기도했으며 연합찬양대가 특송을 했으며 박희민 목사(KCMUSA 이사장)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하는 공동체(잠 25: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 했다.

(박준호 기자)



엘피스 가정사역원 제7회 뱅킷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My Kids World 연말후원 음악회

제3세계 국가(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케냐,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에 고아들과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My Kids World 후원음악회가 10일(토) 오후 6시 좋은마음교회(담임 신원규 목사, 111 W. Las Palmas Dr, Fullerton, CA)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소프라노 김종숙, 이지은, 메조소프라노 조지영, 테너 오윙영, 최원현, 바리톤 권상욱, 피아노 김주영, 영엔젤스 뮤직그룹이 출연한다.

▲ 문의: (818)331-5478, (310)404-5555

그레이스미션대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 공개강의

그레이스미션대(총장 최규남 박사)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 공개강의가 14일(금) 오후 4시 본교 310 강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개강의는 비영리단체 설립 및 연말 후원자 영수증 발행 관련 내용을 다루게 되며 제임스 구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문의: icmm@churchhomepage.org, 714-393-4595(Center)

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관하는 유스하이어콜링컨퍼런스가 ‘Living Hope(벤전 1:3)’이라는 주제로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웨라톤 페어플렉스 호텔 컨퍼런스 센터 (601 W McKinley Ave, Pomona, CA 91768)에서 열린다. 대상은 6-12학년.

▲ 문의: (818)314-6643, (213)210-8248



캐롤트에 위치한 큰나무교회에서 ‘박스 오브 러브(Box of Love)’ 행사를 진행했다.

큰나무교회, 박스 오브 러브(Box of Love) 행사

Box of Love 100개 박스 지역 사회에 전달

텍사스 캐롤트에 위치한 큰나무교회(담임 김귀보 목사)에서 지난 11월 2주 동안 ‘박스 오브 러브(Box of Love)’ 행사를 진행했다. 박스 오브 러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사회의 100 가정에게 추수감사절 만찬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성도들은 사랑의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 박스 오브 러브를 위해 헌금을 마련했다. 큰나무교회 측은 “모인 헌금으로 첫 주에는 터키 한 마리와 터키 스테핑(Stuffing), 콘 브레드 믹스(Corn bread mix), 콘 캔(canned corn), 그린빈 캔(Canned green beans), 양 캔(Canned yams), 햄 그레

이비 캔(Canned ham gravy), 크랜베리 캔(Canned Cranberry sauce), 호박 캔(Canned pumpkin), 감자(Bags of potatoes), 카프리콘 주스 등으로 구성된 박스 100개를 어린 자녀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둘째 주에는 만들어진 박스 100개를 라이프포인트 교회(Lifepoint church)와 엘 센트로 교회(El Centro church), 달라스의 코너스톤 교회(Cornerstone church)와 오아시스침례교회(Oasis Baptist church) 등 4곳에 나눴다”고 전해왔다.

(정리: 박준호 기자)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가 웨스트민스터 경찰국 경관들에 점심 제공을 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가 웨스트민스터 경찰국 경관들에 점심 제공

웨스트민스터의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지난 2일(금)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에 방문하여 경관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교회 측은 연말을 맞아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통해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

다. 다양한 한식과 BBQ가 차려진 테이블 앞에 남성수 담임목사, 김창근 목사, 정재훈 장로, 천승현 장로, 조진휘 봉사위원장 그리고 교회 성도들, 경찰국 관계자가 함께 자리했다.

(기사제공: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시청각장애인들 목장 나들이 '세상과 교감'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가평양떼목장서 뜻깊은 행사

지난달 30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가평양떼목장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장애인들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장애인들은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들의 보드라운 털을 만지면서 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한 곳은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였

다. 헬렌켈러센터는 201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목장 견학에 필요한 비용이나 차량 등을 후원한 곳은 온누리교회재단,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와 누리사랑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

원, 동남로타리클럽, 동성실업이었다. 이 중 온누리교회 누리사랑부는 성인 지적장애인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누리사랑부를 대표해 행사에 참여한 이강혁 목사는 5일 "이번 나들이를 통해 서로가 가진 것을 공유하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헬렌켈러센터에 따르면 국내 시청각장애인은 1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중복 장애 탓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많은 제약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개월간 외출한 적이 없다는 시청각장애인 비율이 14.5%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결과(5.2%)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홍유미 헬렌켈러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로 단절된 시간을 더 많이 겪어야 했던 시청각장애인들이 오랜만에 세상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뜻깊은 나눔을 실천한 후원 단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한파에 겨우 한끼 먹는 어르신들 어떡하라고...

"9일까지 밥퍼 급식소 철거" 동대문구청 통보에 발동동

1988년 청량리 노숙인과 무의탁 노인을 위한 라면 봉사로 시작해 지금까지 34년간 무료 배식을 이어가고 있는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 사역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최근 공문을 보내 오는 9일까지 건물을 철거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공동체 최일도 대표는 5일 "밥퍼가 없어지면 추운 겨울 이 곳에서 밥 한 끼를 겨우 먹는 독거 노인들은 굶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건물을 합

법화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사역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동대문구의 철거명령 이유는 '무단 증축'이다. 현재 다일공동체는 서울시가 지어준 건물 옆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 중인데, 그러나 건물에 증축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대문구에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서울시 실무자와 협의해 신청을 했고 구는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무단증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구의 주

장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가 무단 증축을 이유로 최 대표를 고발한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사역에 지나친 행정제재를 한다며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서울시는 고발을 취소하고 다일공동체가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 토지사용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이번엔 동대문구에서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최 대표는 "다일공동체가 무상급식을 시작한 후 역 광장과 거리에서 14년간 배식을 했다. 그것을 본 서울시가 2002년과 2008년 임시 가건물을 지어줬다"며 "그때 서울시가 합법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무상급식 소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동대문구청장은 직접 증축할 공간을 주선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지난 7월 구청장이 바뀐 후부터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며 철거를 명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일공동체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500~600여명의 무의탁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1200여명에게 도시락을 배식하며 밥퍼 나눔을 멈추지 않았다. 건물 증축도 찾아오는 이들이 늘면서 화장실과 식자재 보관 창고, 자원봉사자 탈의실 등이 부족해 진행된 일이다. 건물이 철거되면 이곳에서 밥을 먹고 교제하던 독거 노인들의 쉼터가 사라진다.

교계는 다일공동체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밥퍼 사역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한국교회가 마땅히 해야 했던 일인데 다일공동체가 대표로 수고해준 것이다. 그런데 구청장이 막무가내로 철거를 명령한 것은 분별력이 부족했다"며 "한국교회도 다일공동체가 혼자 짐을 짊어지도록 내버려 둔 책임이 있다. 다일공동체와 최 대표님이 외롭지 않도록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순창 총회장도 "소의된 이웃을 위한 배려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대에 섬김의 본을 보인 다일공동체를 강제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단적으로 다일공동체와 최 대표님을 보호하고 차후 발생하는 일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도자는 시대를 알고, 하나님 뜻 따라 사명 감당해야"

국가조찬기도회 1200여명 참석 열기

이른 아침 교계 및 정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가 기도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사명에 충실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됐다.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열린 제54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회장 이봉관 장로)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정계·교계 지도자들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가 전면 대면행사로 진행된 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이다. 이봉관 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기도회는 줌(Zoom)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설교자로 나선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는 "성경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사편 33:1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복 있는 나라요, 복을 받은 나라라고 확신한다"면서 "지도자로 선택 받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한가"라고 질문하며 지도자의 덕목을 짚었다.

그는 "지도자는 자신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하고 각 시대마다 민족과 공동체가 꼭 해야 할 일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남들이 별로 알지 못하는데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반드시, 기필코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별기도 시간에 국가 지도자와 국가의 도야, 사회통합과 이태원 참사 위로를 주제로 합심 기도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이심 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인 '국가지도자들과 국가안보'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야와 국정안정' '사회통합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태원 참사 위로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각각 기도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도회는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기도회에는 국회조찬기도회 임원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이재이 대한민국교회조찬기도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희재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은 각각 개회사를 낭독하고 개회기도를 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순수 기도운동 단체다. 1966년 창립한 뒤 대한민국의 번영과 복음적 가치 확상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다.



교계 "동성애·성전환 안돼" ... '개정 교육과정' 반발 확산

기독교민단체 등 서울·부산서, 개정안 폐기 촉구 규탄 집회 잇달아

교계와 기독교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출석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과정 시안이 반성 경적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반하는 만큼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교육과정 개정을 강행하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담당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를 위한 국민대회"가 지난 1일과 3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잇달아 열렸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들과 시민 1000여명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성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확정해 5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로 무책임하게 넘기려 한다"며 "국민과 종교계, 학부모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여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성 혁명을 획책하는 용어인 '성적 자기결정권' '성인지' '성소수자' '포괄적 성'을 비롯해 양성평등이 아닌 단순한 '성평등' '성재생산건강권' '다양한 가족 존중' 등의 문구가 국어 사회 도덕 보건 가정 등 대부분 과목에서 발견돼 우려스럽다"며 "이는 비윤리적인 동성 섹스, 성전환행위, 유아 및 미성년 섹스, 낙태 등을 정당화하고 이를 양성, 신앙상 반대하는 행위조차 금지하는

소위 '성독재적 용어들'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의 과목에 교묘하게 포함돼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동성애를 어렵게 숨겨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근거로 해당 교육과정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고시하려 한다는 점을 두고서는 혼시규정에 불복한 만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저지하고 나섰다.



몽골 최초 한인교회 '울란바타르 한인교회'

몽골 최초 한인교회인 울란바타르 한인교회(이상수 목사)가 서른 살을 맞았다. 1992년 설립된 울란바타르 한인교회가 지난 30년간 걸어온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개척 당시 울란바타르 한인교회 목회를 맡겼다고 나서서 이는 없었다. 현직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선교가 아니라 해외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사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0일 열린 설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초대 담임인 안교성 목사를 시작으로 안광표 김봉춘 목사에게 이어 2020년 1월부터 시무하고 있는 이상수 목사까지 한자리에 모였다고 울란바타르 한인교회는 몽골 선교사 자녀인 약동유지선 멤버(이찬혁·이수현)가 다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복음법률가회 조영길 변호사는 "몇 군데 문구 수정이 이뤄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체 집필 방향과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며 "그런데 한 달도 채 안 남은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 일부 수정하는 시늉만 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과 교계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분노, 심판을 초래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고 비판했다.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와 바른청년연합 등 35개 단체 2000여명도 3일 부산시청 인근 광장에서 같은 성격의 집회를 열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현국 해운대문화교회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양성평등, 자유시장경제 원리다"며 "이 가치를 훼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규 부전교회 목사는 "수십 가지 성, 젠더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교육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부정하고 훼손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의 탈을 쓴 아동학대이자 범죄다"고 비판했다.

피종진 목사 12월 부흥성회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홍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D.Th.D)

1(목)~2(금) 청주 갈보리 축복교회 (김영순 목사) 010-8434-0154
5(월) 오전 제54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장소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오전10시연립부흥성회(장소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010-2238-3999
6(화) 미스바람성가대 (원장 서순환)
7(수) 오전 한미연합부흥성가대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미스바람성가대원 (원장 서순환)
7(수)~8(목) 춘천 하누리교회 (홍준열 목사) 010-7203-3678
9(금) 오전 국민일보 (회장 조인재) & 재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운영총재 한영훈 목사) 국민대신성사 010-2009-7272
9(금) 저녁 부산중앙교회 철야성회 (박재우목사)010-2232-0176
10(토) 오전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찬근 목사) 임직식 (02) 3411-9191
10(토) 오후 서울누가신대원 (대표회장 김성만 목사) 010-6230-5530
12(월) 오후 강남금성기독교원 (원장 최동인 목사) 교무부장 김진석 목사) 010-3790-2462
13(화)~14(수) 구미 방주교회 (강영신 목사) 010-8280-0346
16(금) 저녁 서울대학교 ABKI 장소 동대문 메리이트호텔
19(월) 오전 대전 새길교회(김정호 목사) 010-9588-9284
19(월) 오후 서울신학교 (회장 김준환 목사)
주최 :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이사장 정진희 목사 대표총재 정도훈 목사) 010-7567-8291
19(월) 저녁 서울강남 반석교회(강사람 목사)010-8331-3431
20(화) 오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대강당(대표총재 한영훈 목사)010-8082-9569
21(수) 오전 국제신학교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22(목) 오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임직식 (총회장 김남익 목사) 010-6663-3310
22(목) 오후 서울 무지개교회 (이목자 목사) 무지개 선교회 18주년 기념예배
23(금) 저녁 서울강남 반석교회(강사람 목사)010-8331-3431
25(주) 오후 김포 강림교회 (조경숙 목사) 010-8222-1992
26(월)~28(수) 제주 컨퍼런스 주최 한국교회 예배회복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30(금) 오전 한림성가대원 (원장 이영근 목사) 주최 한국기독교부흥성회 총연합회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찬근 목사) 02) 3411-9191
31(토) 저녁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mission 선교의 창 (207)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운동선수와 선교사의 공통적 요건

제22회 FIFA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다. 본 대회는 2022년 11/20~12/18일까지 카타르(Qatar)에서 열리고 있다. 이는 아랍 국가에서 처음 개최하는 대회이다. 이번에는 어느 나라 팀이 월드컵을 갖게 될까? 지난 10여 년간 축구의 왕대 축을 형성해온 리오넬 메시(Lionel Messi) 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세계의 이목이 온통 카타르에 가 있다. 스포츠 종목에는 다양한 선수들이 있다. 이름 있는 선수들은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투지, 체력, 기술, 팀워크이다. 선교사 사회는 어떠한가? 선교지에 있다고 다 선교사라 말할 수 없다. 작금(昨今)의 피선거지를 돌아보면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것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으며 또한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현장을 어지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많은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선수들처럼 기초적 자격을 갖춘 선교사이어야 한다.

1. 강렬한 정신

훌륭한 선수는 강렬한 투쟁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투지(鬪志)로서 싸우고자(鬪)하는

굳센 뜻(志)이다. 좀 격한 표현을 하자면 승부근성을 말한다. 선수가 너무 얌전하면 경기가 재미없다. 박수를 받을 수도 없다. 투지가 없는 선수는 시장 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동태처럼 보이기 쉽다. 선교사도 강한 정신이 필수이다. 적당히 해서 될 일은 없다. 일사각오(一死覺悟):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라)의 정신이 요구된다. 이는 1935년 9월 주기철 목사가 모교인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사경회 강사로 가서 전한 설교 제목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

리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 목사님은 그 설교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일제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다. 그렇다. 운동이든 사역이든 죽을 각오로 임하면 거칠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 사람은 물론 하늘까지 감동하게 된다. 설사 목격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한다 해도 그 투쟁 정신은 길이 여운을 남기게 된다.

2. 건강한 체력

운동경기란 한마디로 힘쓰는 일이다. 그러려면 강한 체력이 받쳐주어야 한다. 유명선수들은 기초 체력을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 극기 훈련 등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한다. EPL에서 괴물로 통하는 노르웨이 출신 '엘링 홀란드(Erling Haaland)의 식단이

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체력이 약하다. 주된 원인은 영양결핍, 과로, 불규칙적인 삶 때문이다. 선교사는 운동선수처럼 먹고 체력단련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장기 사역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선에서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운동화도 관리 않고 막 신으면 곧 헐어지듯이 우리 몸도 그러하다.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실력이다.

3. 탁월한 주특기

주특기란 군대용어로서 군인이 배정받는 전공분야를 말한다. 모름지기 운동선수들은 평범하면 대성할 수 없다. 저마다 기발한 기술 그 중에서도 주특기가 있어야 한다. 남미 선수는 현란한 발 기술이 있다. 유럽 선수는 힘을 바탕으로 한 조직력

두리몽실하면 빛을 발하기 어렵다. 주특기는 비장의 무기와 같다. 장인(匠人, master)처럼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면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선수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힘쓰기보다 강점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강점이 커질수록 약점은 저절로 작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4. 완전한 팀워크(Teamwork)

"혼자서는 작은 한 방울이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를 이룬다." 이는 일본 작가 Ryunosuke Satoro가 한 말이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적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으로는 팀을 만들 수 없다. 이로서 사람들은 조직을 이루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때 꼭 필요한

세계 선교의 아킬레스건(Achilles tendon)은 바로 이것이다. 한인 선교사들은 실력도 있고 헌신도 높고, 하나 팀워크가 약함으로 선교지에서 랜드마크(landmark)적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전 미식축구 코치인 감독을 역임한 Dick Vermeil가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의 25%는 실력이고 나머지 75%는 팀워크이다."라고 한 말을 깊이 새겨야 한다.

5. 맺음 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히12:1). 여기 말씀처럼 성경은 운동경기에 비유하고 있다. 운동선수와 선교사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대표 격으로 차출되어 경기와 사역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들이 훌륭한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4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일사각오'와 같은 강렬한 정신이다. 둘째는 로봇(Robot)처럼 튼튼한 체력이다. 셋째는 자기만의 주특기가 있어야 한다. 넷째는 팀워크 적 태도이다. 이런 선수와 선교사가 있는 곳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12/18일에는 제22회 월드컵이 끝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 팀이 틀림없이 월드컵을 거머쥔 것이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래서도 선교사도 여호와 닮은 자(Jehovah-nissi)깃발을 기대하며 사명 따라 올곧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교사가 추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이다. 그것은 절대적 평가이다.

jrsong007@hanmail.net

**투지(鬪志)는 싸우고자 하는 굳센 뜻이다.
체력은 소프트웨어를 담는 하드웨어와 같다.
주특기는 군대 용어로서 배정받는 전공분야를 말한다.
팀워크란 구성원이 목표를 위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이체롭다. 영국 매체 "The Sun"에 의하면 그는 194cm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 요리사를 고용하고 있다. 그는 하루에 6기 4,000칼로리의 엄청난 열량을 섭취한다. 사람들은 그가 꼼처럼 먹는다고 한다.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대표적인 선수는 호날두이다. 그는 철저한 자기 관리로 인해 올해 37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팀 주장으로서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체력이 힘ियो 승리를 담보하는 원천이다. 선교사도 건강한 체력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한다. 몸이 약하거나 병들

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쓰며 속도감이 뛰어나다. 막내 형이라 부르는 이강인 선수는 황금의 왼발을 가지고 있다. 김민재 선수는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맞장 뜨는 대결을 잘한다. 그렇다면 선교사에게 주특기란 무엇인가?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어떤 분야이다. 물론 선교사는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만의 강점인 사역이 없으면 안고 없는 쟁쟁과 같이 된다. 따라서 선교사는 관심 분야에 전문성을 개발하며 살 필요가 있다. 사역이 특정 없이

것이 팀워크이다. 이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축구경기는 정말 팀워크가 중요하다. 감독, 코치, 선수 등이 한 뜻, 한 마음으로 호흡해야 승리할 수 있다. 선교현장도 마찬가지이다. 선교사, 파송 기관, 현지인 사역자, 동료 선교사 등과 함께 역할 분담을 하며 철저히 힘을 합쳐야 한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합주와 같다.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면 그 음악은 망치게 된다. 독불장군식 1인 다역(一人多役)은 빌딩을 지을 수 없다. 한인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24강. 가나안 정탐, 아론의 지팡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 / (민수기 13-19장) (1)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양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나안 정탐'입니다. 가나안 정탐은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 경험과 전통에 묶여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듣고 이제 '바란 광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민 13:2)고 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을 명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광야 40년을 마감하며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때를 회고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신 1:20, 21)고 하였지만 너희들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신 1:22)고 하였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9가지 재앙과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부터 홍해를 건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언약을 주시며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행하셨고(출23:20, 23, 27, 32:34, 33:2)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언약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떼쓰고 억지 부리는 자녀에게 '허용'을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발람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사건'에서 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십 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결국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총 12명이 정탐을 갑니다(민 13:2-16). 모세는 이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

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신 1:29-33)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탐을 보낸

의 문제가 아닌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 어떻게 들어가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40일 정탐을 하고 온 지휘관들의 주장은 예상대로 '우리를 보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큰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나 자손을 보았다'(민 13:27,28)는 것이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거니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나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때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민 14:7-9)고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가나안의 견고한 성과 거인 자손들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그들은 강하고 크고 우리는 작고 미약하다'는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의 눈과 귀에만 그 '견고하고 강하고 크고 불가능한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은 회중이 소리를 지르고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죽게 두지 어찌하여 이곳에 데리고 와서 같이 죽게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난리가 났습니다(민 14:1-4). 이스라엘 백성들도 난리가 났지만 모세와 아론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불신앙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기에 앞드리는 것 밖에는 길이 없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민 14:5).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민 14:11,12)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며 중재하는데(민 14:13-19) 모세가 붙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금홍하심'입니다(민 14:18,19). 하나님은 이번에도 '전염병으로 죽이시겠다'는 뜻은 돌이키시지만(민 14:20)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민 14:21-23).

(15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의도' 하심이 아닌... 단지 떼쓰고 억지 부리는 자녀에게 '허용'

'가서 확인해보자'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반역'인 것입니다. 가서 확인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가고' 가능성이 없으면 '가지 않겠다'는 식의 정탐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깨는 치명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창 12:1)으로 가라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

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민 13:18-20)고 했지만 이것은 모세의 명령이라기 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후에 모압 평지에서 정탐을 마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신 1:26)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서

다는 것'은 이미 '실패'입니다. 그래서 40여 년 후에 그 12정탐꾼 중 믿음의 두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는 여러교성 정탐을 위해 각 지파 대표가 아닌 자기 사람 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땅과 여리고를 여보라'(수 2:1)는 말만을 줍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않고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만 만나 그녀의 믿음의 고백(수 2:9-11)만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12정탐꾼의 임무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나 마느냐'의 문제였다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의 임무는 '가나안을 가고 안가고

것이 아니라'(민 13:31-33)고 주장합니다. 출애굽 전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적이 없었던 여호수아는 여러교성 정탐을 위해 각 지파 대표가 아닌 자기 사람 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땅과 여리고를 여보라'(수 2:1)는 말만을 줍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않고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만 만나 그녀의 믿음의 고백(수 2:9-11)만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12정탐꾼의 임무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나 마느냐'의 문제였다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의 임무는 '가나안을 가고 안가고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둘째 사랑 (계 21:7-8) 찬 202장

첫 부활에 참여한 교회를 가리키는 이기는 자와 대조되는 부류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을 받습니다. (7) 이것은 새언약에 참여한 자가 받을 기쁨으로 부자간의 영원한 교제를 기본으로 한 은혜입니다. 둘째, 그러나 불복자는 둘째 사랑에 참여합니다. (8) 여기에

열거한 8부류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살아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행함에 따라 형벌을 받습니다. 셋째, 그들은 유향불에 던지워집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로 된 흉악한 곳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화 어린양의 신부 (계 21:9-11) 찬 162장

신천신지 위의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연합된 조화를 이룬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린양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곧 하늘에 완성된 구속을 받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리킵니다. 둘째,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그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모든 교회 역시 그

성품을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셋째, 거룩과 순결로 채워집니다. 여기 벽옥은 거룩을, 수정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 거룩과 성결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미 그 속에 참여한 우리는 그 은혜를 여기서도 즐기며 그 날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삽시다.

수 천당의 모습 I (계 21:12-17) 찬 541장

주님이 가르치신 장소로 된 하나님 나라는 요한에 의해 어떻게 보여집니까? 첫째, 열두 문을 가진 성곽이 있습니다. (12-13) 그 동서남북 문들 위에 12 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은 택한 자만이 들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 성곽의 열두 기초석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은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됩니다. 셋째, 천사는 그 문과 성곽을 측정합니다. (15-17) 이것은 천당이 최고의 실재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합시다.

목 천당의 모습 II (계 21:18-21) 찬 414장

천사가 측량한 성곽, 성, 그 기초석 그리고 열두 문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벽옥으로 된 성곽 (18) - 벽은 거룩을 표현한 것으로 천당은 하나님의 거룩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둘째, 성은 유리같은 정금 (18) - 세워진 모든 것이 정금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셋째, 각색 보석으로 된 성곽의 기초석 (19) - 12종류의 보석인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며 의, 인, 신 (마23:23 참조)의 표현입니다. 넷째, 열두 진주문과 정금도 (21) -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진 그 천당이 나의 분향인 사실을 찬양합니다.

금 천당의 모습 III (계 21:22-25) 찬 167장

그 성안의 모습과 활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거기에 성전이 없습니다. (22) 성부와 성자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달의 비취가 없습니다. (23)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양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밤이 없고 그 빛 아래 만국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옵니다. (24-25) 만국이 빛 가운데로 왕래하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리로 들어오는 것은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곳을 암시합니다. 모든 상징주의가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가 완전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총명으로 채워진 활동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의 소망 속에 나아갑시다.

토 천당의 모습 IV (계 21:24-26) 찬 91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당의 활동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 그곳은 거룩한 활동이 자극적으로 일어납니다. 밤이 없고 낮에 항상 문이 열려있음이 이를 암시합니다. (25) 둘째, 만국의 왕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가는 표현이 없음을 구속의 완성으로 자기 백성을 여러 형태로 불러 모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만유의 회복이 강

조 되었습니다. 셋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옵니다. (27) 성령은 천당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들어올 자격조건을 분명히 하십니다. 모든 죄의 뿌리인 불경건한자는 못 들어오고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참여합니다. 그 날을 겸손히 준비합시다.

기독교 교육 (17)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

인구조사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의 통계자료를 보면 역사상 1170억 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국제연합(UN)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매일 38만 5천 명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유독 2천 년 전에 탄생한 아기 예수의 생일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기 예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씨로서 처녀로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창 3:15; 22:18; 사 7:14; 미 5:2). 예수님의 탄생을 그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갈 4:4; 3:16; 마 1:23; 2:1).

둘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눅 1:35).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마 3:17; 17:5).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가르치셨습니다(마 11:27; 눅 22:70; 요 1:18; 10:30, 38; 12:44-45; 14:7-11; 16:28; 17:21-22). 베드로, 요한, 마가, 바울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마 14:33; 16:16; 막 1:1; 행 9:20; 롬 1:3-4; 고전 8:6; 갈 4:4-5; 골 1:13-22; 2:9; 히 4:14; 요일 5:9; 요이 7-9).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마 8:29; 막 3:11; 눅 4:41).

셋째, 아기 예수는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으며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8-23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니 가리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넷째, 그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본성과 그것이 요구하는 것들과 필요들을 다 짊어지셨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모든 인류와 완전히 동일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셨고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세상 죄를 모두 지셨습니다(요 1:29; 고후5:19-21).

다섯째,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영화롭게 했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인간에게 죄로부터 구속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

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롬 3:23-26).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롬 5:6-21; 8:1-3).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주셨습니다(롬 10:4).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1-5).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에 관해 그의 서신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고전 1:30; 2:2; 고후 8:9; 빌 2:5-11; 딤후 2:12-14). 베드로도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에 관해 증거했습니다(벧전 2:21-25).

여섯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바로 그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에 따라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마 28:1-6; 눅 24:46; 요 20:1-20; 행 2:22-24; 고전 15:1-8).

일곱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 가셨고(행 1:9; 엠 4:7-10; 딤후 3:16),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행 7:55-56; 엠 1:20; 히 1:1-3; 12:2). 그곳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 단 한 분의 중보자로서 계시고, 그 중보자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롬 8:34).

여덟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모든 신자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요일 4:14-15).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십니다(히 7:14-28; 9:12-15, 24-28; 13:8).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히 4:14-15). 믿는 자가 죄를 짓고 자백하면 용서해주십니다(요일 1:7-9). 그래서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행 9:4-5).

아홉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능력과 영광중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살전 4:14-18). 그때는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고전 15:24-28). 그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계 1:13-16; 5:9-14; 12:10-11; 19:16).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같이 될 것입니다(요일 3:2). 마라나타.

이와 같이 심오한 이유로 인해 아기 예수의 생일은 각별한 주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회 안팎이 엉뚱한 이유로 들뜨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릭터빌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종족명
아마지기 ('자유인'이라는 뜻) 종족

▲ 인구
약 150만 명

▲ 종족의 종교
이슬람교. 7세기 이슬람 화되기 이전에 다수가 기독교였다.

▲ 종족의 교회 상황
보고된 바는 없으나 사이비/인터넷 모임이 있다고 한다.

▲ 모델 되신 분에 대한 특이사항
현재 친구의 올케이자 친구 시댁 쪽의 사촌이다.

▲ 기도제목
(X국 섬)

- 1. 가족 중 유럽에 취업하여 사는 이들이 많은데 복음을 들을 기회와 좋은 믿음의 이웃을 주시고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2. 수공예, 도자기, 카페트,

올리브, 호텔, 식당 등에서 관광 수입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불안하고 어려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X국 내륙)

- 1.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는 내륙 지역을 위한 좋은 산업이 세워져 흠어진 가족이 다시 돌아오고 복음이 씨가 자라 영육이 풍성해지도록
2. 전담 성경 번역 사역자가 없는데 잘 준비되고 좋은 팀이 형성되어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3. 자신의 말로 된 이야기가 다양한 매체로 만들어져서 차세대들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L국)

- 1. 내전으로 정치, 사회, 경제가 불안하여 교육 상황이 열악한데 뜻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좋은 학교가 세워지도록
2. 외국인 사역자들이 다시 들어와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도울 문이 열리도록
3.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가정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경 번역과 접점에 발전이 있도록
4. 놀라운 부흥이 해안을 통해 일어나고 이것이 산지와 내륙의 종족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통로가 되도록
5. 성령의 역사로 가족, 마을 단위의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선교 편지

케냐

동역자 여러분, 주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케냐로 들어 온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은 케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SEED 동료 선배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큰 불편함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어 연수

저희는 약2주전에 LIMURU 라는 도시에 있는 언어학교에 들어와 언어 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은 1976년에 미국 침례교단에서 이 곳에 신학교를 세우면서 1981년에 이곳 LIMURU에 교단 선교사님들을 위한 언어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유로 그동안 가르치던 현지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선교사 혹은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숙소도 있어서 저희는 이곳으로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6개월은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언어 습득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물 소식

시추를 끝낸 우물은 저희가 와서 여러분이 현금하신 현금으로 지난 주일부터 물탱크를 올려 놓는 Tower 공

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은 지난 주말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계속 해서 밤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공사가 이달 말 즈음에는 마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우물을 통하여 그 근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 탐방

최동훈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무슬림 지역으로 지난 월요일 부터 2박 3일로 가리사 지역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이곳 한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윤석재 목사님 내외와 이곳에 무슬림 연구를 위해 박사학위하시는 임현필 목사님 내외와 저희 부부가 함께 가리사 지역의 미접촉 종족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 동훈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문요야 야 종족의 반대편에 있는 말라코테 부족을 만났습니다.

이 곳은 20년 전에 최동훈 선교사님이 사역하러 들어가셨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여 철수하셨던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 청년이었던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선교사님을 알리고 반가히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케냐 안에서 소수 종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의 도움을 외면 하였음을 후회하고 있음을 대화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을 지나 선교사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살라 종족을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다음 기회로 미루고 돌아 왔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 곳을 탐방하고 계속해서 reach out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저희가 사역하러던 희산에서는 그동안 펜데믹으로 중단 된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같아

서 언어 연수를 먼저 하기로 결정하고 언어 학교로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곳에 와 보니 차가 절실히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같은 SEED 선교회의 최동훈 선교사님께서 차를 하나 대여해 주셔서 오늘(11월5일) 나이로비로 내려가서 그 곳 한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차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차를 대여해 주셔서 앞으로 불편함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제목

- 1. 언어 습득을 잘 하여서 현지인들과 대화 할 수 있도록
2. 함께 동역할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이 이뤄져서 케냐 땅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3. 우물 공사가 순조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2022년 11월, 양재주/ 선속 선교사 드림



원스토리

(13면에서 계속)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너희는 그 땅을 정당한 날 수인 사십년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사십년 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민 14:34)고 하십니다. 결국

거처가야 할 광야에 머물러야 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고(민 14:27)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십니다(민 14:28).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민 14:2)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걸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민 14:29,30)고 하십니다.

그들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민 14:32,35)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민 14:33). 전염병은 내리지 않으셨지만 그 땅을 정탐하고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이셨습니다(민 14:37).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였고 20세 이상인

남자 중에서는 이 돌만 가나안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민 14:40)라며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민 14:43) 전쟁은 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민 14:45).

hfamilyfa@gmail.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3 columns: 1년 구독료, 미국, 캐나다, 한국 및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and their respective prices.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checkboxes for subscription type and language preference.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이성자 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삶 가운데 평범한 기적

우리는 우리들의 평범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변화나 기적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변화를 느끼게 되면 너무나 당혹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사건 가운데서 너무나 타당한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설득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경험 할 수 있다.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한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세심한 배려와 평범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친절하시면서도 자상한 사랑과 축복의 응답이었다. 포도주는 혼인 잔치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이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은 일상적인 것을 뜻하며 일상적인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물이다. 우리의 평범한 것에 대한 필요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이 필요를 하나님은 결단코 거절하지 않으신다. 예수님도 이 소박하고 평범한 요청을 아셨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시면서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한 속삭임으로 "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아무런 저항이나 수군 거림도 없이 순종함으로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 이 모든 일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가나 잔치집의 그 기적은,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물 떠온 하인들 외에는 아

니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분명히 기적이었다.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요, 가치의 상승이요, 용도의 혁신이었다.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는 기적이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타났다.

우리는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변화하는 초고속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의 모양이 변하고 있다. 변화도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는 변화되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기를

도 있고,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왕이면 바람직한 사람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경건하고 고상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빛같이 없던 물이 빛같이 있는 포도주로, 맛이 없던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가치 없던 물이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화했듯이 우리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내가 진정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의 둘 항아리 가운데 일단 들어가는 자기 부인



야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할 일이 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고 평범하게 그 변화의 과정을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수다스럽게 떠들고 소문내는 자기선전은 위선과 거짓만을 나타낼

한 기적은 내용으로 살피우는 은총과 축복으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생활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맛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조용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 2:9)

무도 이 기적의 진행 과정이 내 내용을 알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의 평범함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다. 물

원한다. 사람은 누구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내지는 희생과 헌신의 과정이 앞서야 한다. 나 자신을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녹여서 완전히 없어진 후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다시 거듭

뿐이다. 시끄럽고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것이 없다는 속언과 같이, 떠들고 자기를 나타내는 잔치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일일 뿐이다. 생활에서의 조용

기적을 오늘도 삶에서 만들어 내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자.

언 18:17).

알고리즘 시대에서 크리스천답게...

(3면에서 계속)

효과적인 제자도는 이제 다음과 같은 훈련 항목이 필요하다. 디지털 문맹 수준, 비판적 사고, 측면 읽기, 진리 삼각 측량, 논리적 오류 식별, 논리적 오류 판별, 사실 확인, 그리고 일반적인 온라인 거짓 정보 및 허위 정보 방지 피하기. 알고리즘 시대를 맞아 우리는 검색(search)과 조사(research)를 구분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목소리는 편견을 강화하는 전문가에 더 집중하라고 우리를 설득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무엇보다 증거부터 자세하게 살핀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잠

4. 인터넷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자동차를 수리할 거면 3주 전에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정비공의 말에 나는 일단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에서 수리 방법을 찾아서 내가 직접 고쳤고, 바로 정비 약속을 취소했다. 나는 인터넷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는 것도 아마 알고리즘을 통해서일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잠 되고 존귀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된다.

5. 음모론에 도전하라

구약과 신약은 모두 정보를 흘뜨리고 분열시키며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음모론에서 시작한다. 창세기에서 뱀은 하나님을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유익을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민 음모자로 비난한다(창 3:1). 마태복음에서 산헤드린은 제자들이 공모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고 더불어 이기적인 운동까지 시작했다는 음모를 꾸몄다(마 28:13).

오늘날의 회의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기독교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종종 음모론의 형태를 도입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에 사로잡혀 속기 쉬운 것으로 널리 알려지다면, 우리는 거짓 이야기를 부추기고 교회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주범이 될지도 모른다.

6. 정치를 유쾌한 거짓말이

넌린 지뢰밭으로 여기라

지뢰밭은 때로는 건너야 하지만 또 때로는 피해야 한다. 지혜는 그 차이를 안다. 그리스도인이 공공영역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각별한 경계를 요구한다.

정치적 당파주의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는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박하는 증거를 억누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많은 것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불의한 수단 정도는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유혹까지 받는다.

상대방의 이중 잣대는 눈을 부릅뜨고 보지만, 정작 나 자신의 잣대에는 눈을 멀게 만드는 게 당파적 정치이다. 알고리즘의 아첨은 양극화를 부추기고,

문화적 격차를 넓히며, 나아가서 교회의 평화까지 교란한다.

7. 겸손하게 진리를 적용하라

세상은 더 이상 성경 인용, 비판적 사고, 알고리즘 분석,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는 순진한 바보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리 진리를 분별하는 데 능숙하더라도, 정작 내 삶에 진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 10:16). 뱀의 지혜에서 비둘기의 순진함을 배버리면 남는 것은 위선에 찬 양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비둘기가 그렇다고 가장 똑똑할 필요는 없다. 비둘기는 분주함에 휩쓸

리지 않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도 않는다. 또한 정확하게 자신을 판단하고 있으며 언제 무익한 논쟁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기 인식이 있다. 더불어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소셜 미디어에 모인 국가적 차원의 무지에 굳이 나까지 기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원하는 비둘기는 누군가의 주장을 논박하기 전에 먼저 자제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총성, 은유, 절제"를 실천하는 비둘기는 "합리성(reasonableness)"을 가졌다는 평판을 얻는다(갈 5:22-23; 빌 4:5).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알고리즘이 쏟아내는 아첨으로 가득한 세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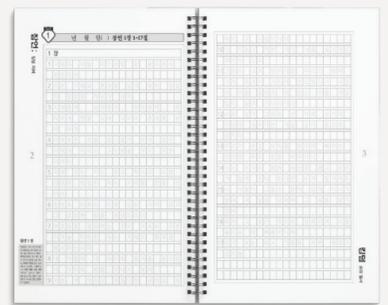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o@chpress.net / 718-886-4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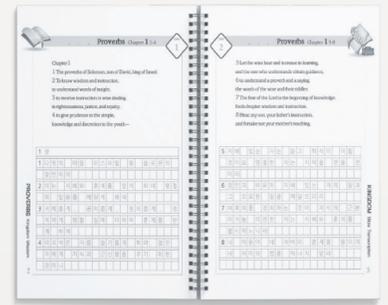
(일반용)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바르고 예쁘게 써보세요.



(청소년용)



영여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한글로 예쁘게 써보세요.